



6개국 133대 33억달러

(2015년 10월 현재 국산 항공기 누적 수출량)

KT-1, T-50의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이라크, 필리핀, 태국 수출로 국내 항공산업의 수출산업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제 미국 T-X 시장 진출과 KF-X의 성공적인 개발 및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수출하겠습니다.



*Fly
Together*

2016 APRIL Vol.196 www.koreaaero.com

Monthly Issue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

KAI Family 새콤달콤한 딸기 농장으로 놀러오세요~

kaiwebzine.com
반응형 웹진으로 만나는 〈Fly Together〉, PC나 스마트폰에
위의 주소를 넣으면 KAI 사보로 연결됩니다.

CHALLENGE OF
KAI

세계를 향한 KAI의 도전은
바로 KAI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합니다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개인의 일자리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과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는 데 일자리 창출의 의미가 있다.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17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오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인증패를 받았다.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국산항공기 수출사업화와 대형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2015년에 재직인원 11.4%에 해당하는 370명을 신규 채용한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력채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3년부터 경남도 내 교육기관과 협약을 맺고 항공우주분야 맞춤형 교육과정인 'KAI 트랙'을 운영해 연간 80명 정도의 인력을 양성, 채용함으로써 항공우주분야의 인재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KF-X 개발과 양산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NTENTS



APRIL 2016 Vol.196

www.koreaaero.com

KAI 百科

- 04 CEO 동정
KAI-IBK기업은행, 항공우주산업 육성 협약 체결 외
- 06 New Focus
신입사원 대상 R&D 입문교육 및 Biz.Essential 과정 운영 외
- 08 소통의 기업문화
이일우 상무 / 비행체설계실장
이진재 상무 / 기체생산2실장
- 12 항공 테마칼럼
KAI의 새로운 나눔 도전을 응원합니다



KAI Magazine

- 14 World Today
불굴의 황금별 전사, 베트남
- 18 기업문화 시리즈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
- 20 Global Story
아이언 맨의 도전은 계속된다
- 22 KAI의 달인
최종조립생산팀5직 안윤석 조장
- 24 Fly News
4인승 '하늘을 나는 차' 2년 내 나온다 외



KAI 행복소통지

- 26 KAI Family
새콤달콤한 딸기 농장으로 놀러오세요~
- 32 이야기 한마당
화합하며 내일을 준비하다
- 34 생생현장탐방
기체생산팀2직
- 40 만나봅시다
산악인 엄홍길 대장
- 44 추억의 여행
기체생산팀2직 김종홍 전문
- 46 오늘을 부탁해
조립검사직 이병대 수석 부부의 깜짝 데이트
- 49 마음을 전해요
동료에게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

발행인 하성용
발행일 2016년 4월 5일(통권 196호 · 4월호 · 비매품)
발행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기업문화팀
담당자 배희운 차장, 구보람 과장(055-851-1609)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광단1로 78
제작대행 디자인신화(02-324-6852)
인쇄 삼화인쇄(02-850-0850)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집지윤리강령 및 집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ly Together〉에 실린 외부 필자의 원고는 KAI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은 KAI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 복사 및 인터넷 공개를 제한하며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누설을 금합니다.

CEO MOVEMENTS

04

VOL.196
APRIL 2016



KAI-IBK기업은행, 항공우주산업 육성 협약 체결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11일 IBK기업은행과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IBK기업은행과 KAI는 항공산업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금융지원과 컨설팅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회사는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항공산업 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협약식을 마친 후 IBK기업은행 일행은 항공기생산실장 주관으로 항공기동 투어를 하며 항공우주산업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KAI 나눔봉사단' 창단식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14일 에비에이션센터에서 CEO, 노조위원장, 임원, 사천시와 사랑의열매 경남 모금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KAI 나눔봉사단 창단식을 개최하였다. 'KAI 나눔봉사단'은 재능기부, 봉사지원, 장학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눠 사회 복지와 지역과의 상생 협력, 장학 사업, 저소득층 자녀와 노인 복지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나눔봉사단은 지역사회 온정을 나누겠다는 의미에서 장애인을 위한 이동식 목욕 차량 1대를 사천시에 기증했다. 봉사단 창단식과 함께 우리 회사는 임직원 봉사 성금을 계좌 후원 방식으로 자율 모금하였으며, 직원의 74%가 이 모금에 참여해 5억 원을 조성하는 등 나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하성용 사장은 "나눔봉사단 창단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은 물론, 소외된 이웃들에게 참된 사랑을 전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박수와 존경을 받는 사회공헌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하였다.



'해외 진출 성과확산 토론회' 참석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산업부·미래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해외진출 성과확산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상외교 경제활용을 통한 우리기업 해외진출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성과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우리 회사는 VIP 세일즈 외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라크, 필리핀, 태국 등에 국산항공기 수출을 성사시킨 사례를 발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에서 해외 저신용 국가로 수출 시 국가적 차원의 장기·저리 금융지원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형 R&D 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를 건의하는 등 국산항공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1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지난 3월 18일 본사 에비에이션센터 회의실에서 제17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 의장인 하성용 사장 주재로 열린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1주당 400 원의 배당을 결정하였으며, 임기 만료된 기타비상무이사의 후임으로 김영한, 정재경, 최병철 등 3명의 신규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했다. 하성용 사장은 주주총회의 의장 인사말에서 "올해 대형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회사의 비전달성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전사적 혁신활동을 통한 수주경쟁력을 높이는 등 세계시장 개척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2016 전사혁신과제T/F CEO 오찬간담회

지난 3월 21일 하성용 사장 주관으로 2016년 5개 전사혁신과제T/F 추진조직과 오찬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 간담회는 혁신과제 전담인력을 격려하는 동시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자의 역할 재인식과 전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였다. 하성용 사장은 "올해는 CEO부터 경영진, 임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목표한 성과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CEO 현장경영, KFX SRR(체계요구조건 검토회의)준비 관계자 격려

지난 3월 23일 하성용 사장은 KF-X 사업의 첫 디딤돌이 될 SRR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을 격려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다. 하성용 사장은 "SRR이 향후 10년간의 체계개발을 위한 첫 출발점인 만큼,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초심을 잊지 말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KFX SRR은 '15~26년간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부족 소요 보충과 미래 전장운영개념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춘 한국형전투기 체계개발사업의 요구도 검토를 통해 체계개발 기간에 수행해야 하는 요구도를 확정하고, 사업 최초의 기술을 검토하는 회의로 방사청, 합참, 공군, 방산기술지원센터, 기품원 등 고객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NEWS FOCUS



신입사원 대상 R&D 입문교육 및 Biz.Essential 과정 운영

지난 2~3월, 2016년 신규인력 조기 전략화를 위한 'R&D 입문교육'과 'Biz.Essential' 과정이 진행되었다. 신입사원들은 8일간의 R&D 입문교육을 통해 우리 회사와 항공기 전반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였으며, 항공기 및 개발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Biz.Essential 과정의 Business Writing, PT, 지역학의 이해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직급별 역할역량 기본(승진자) 과정 시행

2016년 직급별 승진자를 대상으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핵심 스킬 습득을 위한 직급별 역할역량 기본(승진자) 과정을 실시하였다. KB 인재나눔에서 각각 과장/선임연구원 승진자 49명(2, 22~24), 차장/책임연구원 승진자 41명(2, 24~26), 부장/수석연구원 승진자 57명(3, 14~16)이 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대상자들은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서 유익한 시간을 가진 것에 대한 만족감과 승진에 따른 역할역량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구매본부 신행·자연보호 활동

지난 3월 5일 구매본부 임직원 175명은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신뢰와 화합의 구매본부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의령 자굴산에서 산행 및 자연보호 활동을 하였다. 이 행사는 구매본부 2016년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었다. 본부 내 화합과 지역 환경정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행사로 다소 옷은 날씨였지만, 구매본부 임직원 모두가 함께 힘을 내어 모두 안전하게 산행 및 자연보호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현장관리자 리더십 교육 실시

우리 회사는 중장기 인재양성체계에 의한 조직관리자 리더십 교육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지난 3월 8일부터 9일까지 이를 동안 '코칭을 통한 소통하는 조직관리'라는 주제로 직장 리더십 강화 교육이 진행되었고, 조장 대상 리더십 강화 교육은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일씩 3차에 걸쳐 '관리자 마인드 확립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는 경비절감이라는 전사적인 취지에 발맞춰 사내교육장인 인재개발센터에서 교육이 진행되었다.

2016년 전사 변화관리 교육·페어플레이 KAI 과정 시행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14일부터, 전 사원을 대상으로 2016년 변화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 교육은 KAI의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담은 CEO 영상 메시지를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해 '기본 지키기 내재화', '윤리와 준법 마인드 제고' 강의가 이어진다. 이어서 진행되는 Activity '어벤저스 컬링'을 통해 정해진 Rule 내에서 비전 달성을 향한 도전과 열정 의지를 결집하는 시간을 가진다. 4월까지 이어지는 전사 변화관리 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비전 달성을 향해 한발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



행복한 동행~ 제59차 대군 혁신교육

공군사, 비행단, 보급창 등 공군의 혁신 리더 30여 명은 지난 3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우리 회사를 방문해 KAI의 우수혁신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각 소속 부대의 개선활동 추진을 위해 개개인의 역량향상에 힘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2016년 첫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육/해군 각 3회, 공군 5회가 계획되어 있어 앞으로도 군과 함께 국가경쟁력 향상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KT-1PA(국방과학연구소 시험기) 설계검토회의 수행

KT-1PA(국방과학연구소 시험기) 설계검토회의가 지난 3월 22부터 2일간 항공기동 2층 임원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방과학연구소 및 사내 설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 회의는 국방과학연구소 무장 개발용 시험기 구매사업으로, 기존 KT-1 페루 항공기 형상에 계측장비를 탑재하는 것에 대한 상세 설계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회의 결과 다음 단계인 제작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협의 되었다.



A321 16A 1000호기 납품

A321 16A Barrel Panel 1000호기 납품 기념행사가 지난 3월 23일 조립동 현장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회사는 2006년 7월 에어버스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8년 6월 100호기, 2013년 7월에 500호기를 납품해 왔다. 이번에 1000호기를 납품하면서 민항기 동체제작에 대한 우리 회사의 탁월한 능력을 대외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다.





비행체설계실장 이일우 상무

KAI의 미래를 이끌

KF-X 사업의 산증인

13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첫 발을
내딛은 KF-X 전투기 개발 사업은
초대형 국책사업이자, KAI의 미래를
이끌 핵심 사업이다.

비행체설계실장 이일우 상무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끼닭이다. 그는 다름 아닌 KF-X
사업의 산증인이기 때문이다.

기획 배화운 차장 글 정영아 사진 안종근

望. 기회는 꿈꾸는 자에게 온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무언가 배워두면 언제
든 그 지식을 활용할 기회가 곧 찾아온다'고 했다.
또 '기회가 왔을 때 이를 포착하지 못하는 것은
실수이고, 온 기회를 능력이 없어 잡지 못하는 것은
무능'이라고 했다.

누구에게나 세 번의 기회는 찾아온다. 비행체설
계실장 이일우 상무도 세 번의 기회를 만났다. 첫
번째 기회는 삼성정밀 입사였다. 항공기 개발은
고사하고 부품생산이 전부였던 1986년 삼성정밀
에 입사하면서 항공기 개발 사업과연을 맺었다.
당시 업무는 항공기 엔진 창정비(Overhaul), 즉
일정 시간 사용한 항공기 엔진을 분해해서 엔진
수명을 제로 세팅(Zero Setting)하는 업무였다. 이
를 통해 책으로만 배웠던 부품을 직접 만지면서 작
동원리를 터득했다. 곧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다.

1987년 삼성정밀은 회사명을 삼성항공으로 변경
하면서 항공기 사업의 본격화를 선언했다. 이와 함
께 복잡한 형상의 항공기 부품 가공을 위한 CAD/
CAM(Computer Aided Design/Manufacturing) 시
스템을 도입했고, 이일우 상무는 비록 관련 지식은
일천했지만 화려한 그래픽에 마음이 훌려 부서장
과 담판 끝에 업무를 변경했다. 그 후 1993년 사내
연구소로 부서를 옮겨 KTX-2(T-50 프로그램의
초기 명칭) 개발에 참여하는 기회를 잡았다.

"1990년대 초반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KT-1개발에 들어갔는데 우리 회사도 전방동체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제가 담당하던 업무
는 CAD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 업무
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연구소로 부서를 옮겼죠."
이 과정에서 이일우 상무는 T-50 체계개발 기간
동안 공력설계, 풍동시험, 비행시험을 수행하면
서 비행기 설계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2006년 드디어 KF-X 사업을 만났다. KF-X 탐색
개발을 시작으로 KF-X 체계개발 계약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는 KF-X 비행체설계실을 책임지고
있다.

부품 개발이 전부였던 항공기 개발 사업의 활무
지에서 출발한 항공공학도의 꿈은 30여 년이 지
난 지금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KF-X 개
발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한 걸음, 한 걸
음 고집스럽게 꿈을 지켜온 결과이다.

樂. 성공은 즐기는 자의 뜻이다

항공기 개발사업의 불모지에서 오직 항공기 설계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꿈을 꾸면서 이일우 상무는
항상 고민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토
대가 단단해야 하기에, KAI의 성장이 곧 자신의 꿈
이었다. 그 고민은 임원이 된 최근 더욱 깊어졌다.
"항상 KAI의 위상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꽤 오래
전엔 국내에서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정신
나간 소리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시
대를 앞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항공기 개발 사업을 시작했고, 오늘
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회사의 외형을 키우기 위한 주력(Flagship) 사업
과 항공기 개발 인프라, 인적자원 확보 및 육성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KAI는 KF-X 체계개발사업, LAH/
LCH 체계개발사업 계약을 통해 회사를 획기적으
로 성장시킬 수 있는 주력 사업을 획득했다. 또



개발본부 전 구성원의 염원이었던 항공기 개발센
터가 본격 가동되면서 KF-X 체계개발 착수를
통한 설계, 해석 및 시험평가 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충을 앞두고 있다. 2016년 현재, 이일우 상무가
항상 꿈꿔왔던 KAI의 큰 틀이 그려진 것이다.
"비전 2020을 달성한 2020년 중반 이후 민수완
제기 사업, 항공전자 사업, 항공기 정비(MRO) 사
업에 진입하게 되면 항공기 개발 리딩 기업인 보
잉, 에어버스, 록히드와 어깨를 나란히하게 될 겁
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
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
보다 못하다(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
之者)'고 말했다. 이일우 상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다. 기회는 꿈꾸는 자를 알아보고, 그 꿈을 이
루기 위해 기꺼이 즐겁게 임할 때 꿈은 현실에 뿌
리를 내리게 된다. KF-X 사업이 그 증거요. 이일
우 상무가 산증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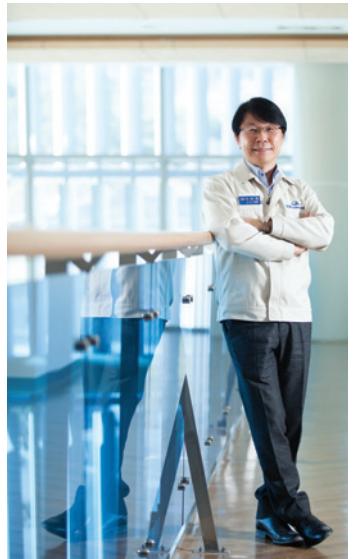
"T-50 체계개발사업까지는 주로 획득된 사업을
실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KF-X사업에
서는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 사업화에 직접 참여
해서 계약에 이르렀습니다. 2006년부터 꼬박
10년에 걸친 전 기간 동안 참여해 체계개발 계약
체결까지 도달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자부심이
자, KAI의 미래를 위한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COMMUNICATION LEADER

따뜻한 공감으로

기체생산2실장 이진재 상무만큼 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은 리더는 없을 것이다. 입사 아래 줄곧 생산기술 분야에서 일하며 생산 현장의 전 과정을 체득해왔기 때문이다.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현장에서 소통의 마중물이 되었다.

기획 배화윤 차장 글 정영아 사진 안종근



현장과 소통하는 리더

信. 방향이 기회를 창조한다

직장인에게 임원은 '직장의 꽃'이다. 하여 대부분의 직장인은 임원의 꿈을 안고 업무에 매진한다. 산청공장을 총괄하는 기체생산2실장 이진재 상무 역시 같은 꿈을 꿨다. 하지만 임원이 된 지금은 막중한 책임감을 절감한다며 임원 승진에 대한 짧은 소회를 밝혔다.

"생각 하나하나가 예전과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접하는 정보나 의사결정 범위가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깊고 새로운 시각으로 조망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결정 하나에 조직의 향방이 좌우될 수도 있으니 매사 신중해야지요."

그가 가장 중히 여기는 리더의 덕목은 '정확한 방향 설정'이다. 리더는 조직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해 가는 사람인 깊이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직은 비전과 핵심가치, 목표를 공유한다. 하지만 '함께 나누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특히 KAI처럼 다양한 연령과 직군이 공존하는 조직에서는 더욱 어려운 문제다. 그 답을 이진재 상무는 '관계'에서 찾는다. 조직의 모든 업무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성과를 내기 때문이다. 리더는 단순한 직무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끌

고 가느냐에 따라, 즉 조직 구성원들을 한 방향으로 잘 이끌 수 있느냐에 따라 그 능력이 판가름난다고 생각해서다.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소통이 이뤄져야 합니다. 신뢰, 즉 인간적인 믿음이 바탕에 깔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믿음을 통한 소통과 화합. 이런 것들이 성과를 내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재 상무는 요즘 다시 독서 삼매경에 빠졌다며, 얼마 전에 완독한 <강자의 조건>을 추천했다. 로마시대부터 최근까지 세계 강국들이 어떻게 강자가 되었는지 보여주는 이 책에서 이진재 상무는 '관용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

"관용 역시 기저에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조직이나 개인이 커가기 위해서는 관용의 미덕을 가져야 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리더가 되어야겠지요."

和. 사람이 희망이다

이진재 상무가 무엇보다 소통을 강조하는 깊은 오랜 세월 현장에 몸담으면서 체득한 KAI의 성장 원동력이라 자신하기 때문이다. 소통의 힘은 난관에 봉착했을 때 가장 빛을 발했다.

"B737 미익 초도 개발 때가 기억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주해온 B737 미익 초도 개발을 위해 생산기술 부서를 비롯해 생산, 품질, 치공구설계, 설비, 공정관리 등 각 부서의 여러 담당자가 한 팀을 이뤄 초도 제품 개발을 수행했습니다. 그야말로 대형 협업이었죠.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 희생과 배려가 없었다면 성공적인 초도 개발은 지연되거나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문제점을 예견해주고 제거하기 위해 솔선수범은 기본이고 남의 일까지 미리 처리해주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자기희생과 배려가 성공적인 초도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성공의 기저에는 이해 관계자들과의 좋은 관계가 자리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필수요건이고, 신뢰는 희생과 배려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덕목이지요."

현장 소통의 힘을 가장 잘 아는 그이기에 임원이 된 올해 좀 더 큰 그림을 구상 중이다. 그가 총괄하는 산청공장은 에어버스의 단일 통로(Single Aisle), 즉 A320/A321 기종의 날개 하부 구조물(Wing Bottom Panel) 전용 생산 공장으로 부품 제작에서 조립에 이르는 전 생산 공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대 고객 신뢰도 극대화와 KAI의 위상 강화를 위해 생산량 확대(Ramp Up) 달성을 집중했다면, 올해는 제품뿐 아니라 생산 과정의 질 향상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작업과 소통 환경을 최적화하여 자가발전이

가능한 조직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KAI가 추구하는 비전 2020과도 일맥상통한다.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문화가 다른 아닌 소통이기 때문이다.

"비전 2020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비전 달성을 위해 현장 구성원들의 하나 된 힘을 만들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과제지만, 분해해서 고민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작은 승리를 모아 그 추진력으로 더 큰 성공을 창출하면 되니까요."

이진재 상무
기체생산2실장



“KAI의 새로운 나눔 도전을 응원합니다”



권 한철수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안녕하십니까.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한철수입니다. ‘KAI 나눔봉사단’ 창단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되는 KAI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는 과거 일자리를 만들고 이익을 창출하는 수준에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무형적 가치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의 〈2015 사회공헌 백서〉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내부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체 봉사활동 등 일회성 이벤트 중심에서 벗어나 이제는 성숙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글로벌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보면 기업의 핵심가치와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능기부,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상생 경영을 펼치며 실질적인 사회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은 이제 ‘해야 한다’라는 당위적 차원을 넘어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되는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CSR은 기업의 성공에서 빼려야 떼 수 없는 존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더 심도 있는 CSR의 성공 전략을 제시하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 올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시한 CSR의 두 가지 핵심 트렌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해결자로서의 기업 역할 증대’입니다. 지난해 유엔 지속기능발전 목표와 신기후체제의 논의 과정에서도 나온 것으로, 기업들이 국제사회와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혁신 전략의 강화’입니다. 기업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혁신전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CSR이 과거 대내외 평판 제고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환경과 사회의 양극화 완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용적 관점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가치 창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AI 나눔봉사단’은 이러한 CSR의 핵심 전략, 가치 등을 기반으로 사회공헌의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KAI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 일류 항공기업으로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으며, 기업의 세 가지 사명 중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 개척에 맞춰 CSR을 계획하고 실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나눔봉사단’이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사회 혁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유럽 기업의 CSR은 변화하는 내·외부 인구구조와 사회 상황

**KAI가 지역사회 대표적 CSR의 모범적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골든타임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새로운 나눔 도전에 힘찬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지역사회를 대신해 드립니다.
희망찬 나눔을 위해!
다시 한 번 KAI의 나눔 도전을 응원합니다.**



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돋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KAI 역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단순한 지금 지원이 아닌 인적 지원과 기업의 전문성을 제공하여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CSR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의 기여가 다 함께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KAI 나눔봉사단’은 임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주체적 CSR의 형태로서 자선활동으로 간주하는 1세대 모델과 핵심 사업에 단순하게 CSR 활동을 녹여낸 2세대 모델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나눔은 우리 사회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는 일임과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을 도울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KAI 나눔봉사단’의 창단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자체(국가)와의 관계 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혁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되길 바랍니다. KAI가 지역사회 대표적 CSR의 모범적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골든타임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새로운 나눔 도전에 힘찬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지역사회를 대신해 드립니다.
희망찬 나눔을 위해! 다시 한 번 KAI의 나눔 도전을 응원합니다.

WORLD TODAY



불굴의 황금별 전사

베트남

글 조문근 항공전문기자



베트남 국기를 뒤로 이륙하는 Su-30MK2V. 수직미익에 새겨진 'Sao Vang', 즉 황금별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 최강의 공군임을 자부하는 베트남 조종사들의 훈장으로 여겨진다.

근성과 자부심의 군대 베트남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의 숙명으로 외세의 셀 수 없는 침략과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야말로 피로 점철되어 온 베트남의 역사 앞에서는 절로 숙연해진다.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과 수천 년 동안 서로가 서로를 정복하고 정복당하며 전쟁을 벌여 왔다. 뿐만 아니라 현대에 들어와서는 프랑스에 대항한 대식민지 투쟁이었던 항불전쟁(1차 인도차이나 전쟁), 거대한 미국의 침략전쟁에 맞서 싸운 베트남전(2차 인도차이나 전쟁), 그리고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촉발된 중국과의 중월전쟁(3차 인도차이나 전쟁) 등 당대 최강의 강대국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대국들과 전쟁을 벌인 것 자체가 아니라 이를 전쟁에서 베트남이 모두 승리했다는 점에 있다. 당대의 초강대국들과 벌인 세 번의 인도차이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의 통념과는 동떨어

진 결과로 끝난 것이다. 전쟁은 곧 돈이라는 말이 있듯 베트남의 빈약한 경제력으로는 그들과 맞서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였고, 자연히 군사력 또한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때마다 베트남은 특유의 민족적 근성을 발휘하여 강대국들의 무덤을 자처했다. 특히나 냉전시대의 최강국이었던 미국을 패배시킨 것은 현대전사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장면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 힘든 결과가 나온 것은 수천 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자연스레 단련되어온 민족성과도 결부된다. 때문에 베트남은 군대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도 크다. 좋은 예가 바로 베트남 공군의 국적마크다. 국적마크는 붉은 바탕에 노란별이 가운데 그려진 국기를 충실히 반영하여 형상화되어 있는데, 베트남 공군 조종사들은 이 노란별을 '황금별'을 뜻하는 'Sao Vang'이라고 부른다. 국적마크가 새겨진 기체를 조종하는 것만으로도 훈장을 달고 비행하는 것과 동일시하며 엄청난 자부심을 드러낸다. 어느 국가의 군용기 조종사가

자신의 항공기와 국가에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였고, 자연히 군사력 또한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때마다 베트남은 특유의 민족적 근성을 발휘하여 강대국들의 무덤을 자처했다. 특히 세게 최강 미국을 상대로 16명의 에이스(실전에서 5대 이상의 적기를 격추한 조종사)를 뜻하는 것으로, 전투기



미 공군·해군기 9대를 격추시키면서 베트남전이 넓은 최고의 에이스가 된 반 콕. 그는 더 많은 격추기록을 세울 수도 있었지만 베트남은 국가적인 관리와 보호 차원에서 그를 전투임무에서 해제시키고 조종사 훈련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가 훈련시킨 조종사들 역시 많은 격추기록을 세웠다.

조종사의 최고 영예로 간주됨)를 배출한 그들의 자부심은 작은 항공력 그 이상의 큰 힘이다.

항공력 증강과 쇠퇴를 동시에 준 베트남전

베트남의 항공력이 크게 확장된 계기는 베트남전이었다. 베트남전 이전부터 공산주의 정권의 북 베트남과 민주주의 정권의 남베트남으로 분단되어 대치하면서 각각 소련과 미국으로부터 많은 물적,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 베트남전이 본격화되고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리전 성격이 되면서 북베트남은 공산주의의 쌍두마차였던 소련과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미군이 철수하고 북베트남이 사이공을 점령하면서 완전 공산화된 베트남은 종전 후 남베트남이 미국의 원조를 받아 보유하고 있던 1,000여 대에 달하는 군용기들을 전리품으로 손에 넣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항공력 현대화에 발목을 잡은 것 역시 베트남전이었다. 베트남전 승리를 통해 남베트남을 무력으로 공산 통일시켰으나 상처뿐인 승리였다. 막대한 전비지출과 전국토의 항폐화로 경제기반이 거덜나버렸다. 전후 1980년대 내내 베트남 경제가 암흑기를 걸으면서 항공력도 활폐화되어 갔다. 남베트남으로부터 획득한 1,000여 대의 군용기들은 미국의 부품공급이 일절 없는 상태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동일 기종 간 부품을 뜯어 공급하는 동류전환(cannibalization)으로 근근이 운용하다가 1990년을 전후로 모조리 밭이 둑여버렸고, 소련으로부터 원조받은 항공기들도 예산부족으로 정상적인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항공력 재건의 디딤돌이 된 '도이-모이'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심해지자 결국 베트남은 부분적인 시장경제 개방정책 '도이-모이' 정책을 실시하며 경제개혁에 나섰다. 이를 통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베트남은 연평균 8%대의 엄청난 경제성장을 기록

하며 경제회복에 성공했다. 덕분에 베트남 공군도 망가진 전력을 재건하고 현대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현대화의 상징적인 존재는 역시 전투기 아니겠는가? 당장 100대를 훌쩍 넘는 MiG-21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현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신형 전투기 도입이 시급했다. 베트남의 선택은 바로 러시아 공군 Su-27의 첫 수출형 버전 Su-27SK였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가 경제난에 허덕이면서 수호이 설계국이 강력한 수출노력을 기울인 것과 맞물려 베트남은 당시 도입할 수 있는 최고성능의 수호이 계열기자 당대의 고성능 전투기였던 Su-27을 어렵지 않게 도입할 수 있었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총 12대를 도입함으로써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Su-27 계열 기를 도입한 해외국가가 되었다. 베트남의 Su-27SK 도입은 앞서 중국이 같은 Su-27SK를 대량 도입한 것에 큰 자극을 받은 것도 한 몫 하였다. 그만큼 베트남의 MiG-21을 대체하고자 하는 의지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 공군은 노후화되고 성능개량이 필요한 Su-22 전력에 눈길을 돌렸다. 이를 위해 2004~2007년까지 체코와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으로부터 성능

이 크게 개량된 Su-22M과 Su-30M4 60여 대를 중고로 도입하였다.

2000년대 들어 베트남 경제의 고속성장에 힘입어 베트남 공군은 수호이 전투기 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다. 2004년 4대의 Su-30MK 도입을 시작으로 2009~2013년 사이 24대의 Su-30MK2V를 도입하였다. 현재 베트남 공군이 보유한 기체 중 명실공이 최강의 주력기인 Su-30MK2V는 베트남 공군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기체다. Su-30MK2V의 베이스가 되는 Su-30MK2는 Su-30MK의 성능을 대폭 끌어올린 중국 수출형 Su-30MKK를 기반으로 한 팔방미인이다. '팔방 미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러시아 공군이 운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공대공·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 다양한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고성능 다목적 전투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전자장비 및 레이더 성능을 끌어올려 대함미사일 운용능력이 추가되었고, SAPSAN-E 레이저 조준포드를 탑재하여 레이저 유도폭탄의 운용도 가능하며, 쿠

풀(Kupoil) M400 정찰포드를 장착하여 정찰기로

도 활용 가능한 다목적·다임무 전투기다. 이러한

Su-30MK2의 통신장비를 개량하고 사출작석의



Su-22에 소련 최초의 대레이더 미사일인 Kh-28(NATO명 AS-9)이 탑재되고 있다. Su-27/30 시리즈를 제외하면 현재 일선에 남아있는 Su-22M4가 유일한 유후타격전력이다. 이들은 1990년대에 동유럽에서 중고로 도입된 기체들이며, 이전에 운용하던 Su-22 초기형들은 모두 퇴역하거나 부품용으로 폐기됐다.

WORLD TODAY



주요기종 및 보유 및 주문 현황

기 종	보유	주문
공 군		
Su-30MK/MK2V	전폭기	4/32
Su-27SK	전폭기	7
Su-27UBK	전폭기/훈련기	5
Su-22M/M4	전폭기	36
An-28	해상초계기	1
An-26	수송기	30
C295	수송기	3
L-39	훈련기	26
Mi-8/17/171	다목적헬기	87
Mi-24	공격헬기	25
UH-1H	다목적헬기	26
Ka-32	다목적헬기	2
해 군		
EC225	다목적헬기	2
KA-28	다목적헬기	8
DHC-6	탐색구조/수송기	6

Source: Flightglobal World Air Forces Data Base 2016

사출능력을 보강한 베트남 수출형 기체가 바로 Su-30MK2V다. 앞서 설명한 대로 Su-30MK2V 가 현재와 미래의 중요기체가 되는 이유는 MiG-21과 Su-22M4를 한꺼번에 대체할 기종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2013년 8월 베트남은 러시아와 12대의 Su-30MK2V를 추가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까지 8대를 인수했으며 나



An-124 수송기에 내려지고 있는 Su-30MK2V, 2009년부터 도입된 기체들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위장무늬를 채용하고 있다.

머지 4대는 올해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나머지 베트남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들의 세부내용은 표를 확인하기 바란다.

베트남 항공력의 과제와 미래

현재 베트남 공군은 크게 3개의 비행사단과 6개의 방공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에서는 별도로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수세적 방어 전략을 구사하는 베트남군 특성상 방공전력이 매우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베트남전에서도 북베트남에 광범위하게 배치되었던 S-75 (NATO명 SA-2)는 미군기들에게 그야말로 악몽과 지옥을 선사한 바 있다. 여전히 구형 방공미사일 체계들이 주류지만 최근 러시아의 고성능 방공미사일인 S-300PMU-1과 K-300P 해안방공미사일을 도입하는 등 현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베트남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영유권 분쟁과 맞물려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중국 봉쇄정책에서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베트남의 동부 해안선은 남중국해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봉쇄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이에 미국은 동남아시



베트남 통일 후 최초로 도입한 서방제 고정익기가 된 DHC-6 400시리즈. 베트남 해군의 첫 고정익 해상초계전력이기도 하다.

전력증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Su-30 계열기들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베트남의 항공력은 여전히 단출하고, 전체적으로는 노후화되어 있다. 다만 최근 베트남이 전력확충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해상초계기, 대잠기, 대함 미사일 등의 해상전력이다. 베트남은 약 3,500km에 이르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 (EEZ)의 면적은 140만km²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공·해군의 공중 해상전력은 예산부족과 증강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잘 것 없는 상태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중국과 스프래틀리(Spratly) 군도(중국명: 남사 군도)에서 영토분쟁이 격화되고 중국 해군의 위협이 증강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힘입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던 해상초계기 도입도 이루어졌다. 2010년 베트남은 쌍발 수륙 양용기인 DHC-6 400시리즈 6대를 주문하여 2015년 전후로 전력화를 마쳤다. 이들은 해상초계 및 해상탐색구조 임무에 투입되며 추가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아래는 반중감정이 가장 심한 베트남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2006년에 양국 국방장관은 베트남 전 종전 31년 만에 ‘모든 분야에서 군사협력강화’를 골자로 한 합의에 이른다. 이를 계기로 베트남은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훈련의 규모와 빈도를 키워나가고 있다. 베트남에 대한 러시아의 구애도 만만치 않다. 러시아는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캄란(Cam Ranh)만 항구로 복귀를 적극적으로 탄진하고 있다. 캄란만 항구는 베트남전 까지 미 해군이 사용하다가 미군 철수 후에는 소련 공군기들과 해군 함정들이 주둔했던 요충지로, 스프래틀리 영유권 분쟁이 격화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캄란만 항구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02년 캄란만 항구에서 완전 철수

한 바 있는 러시아는 최근 항구 시설공사 완료 후 함정 재배치뿐만 아니라 공군기지도 다시 건설하여 공군기들을 이곳에 전개시키는 계획을 베트남 정부와 협의 중이다. 공교롭게도 미국 또한 영유권 분쟁 및 전략적 종



최신형 Su-30MK2V를 내세워 내실있는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는 베트남 공군의 향후 행보는 미–러–중 삼각구도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것이다.

요성 등을 이유로 캄란만 항구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어 캄란만 항구를 두고 러시아와 미국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저러나 베트남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 중이다. 한때 강대국들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던 황금전사의 땅 베트남은 이제 자국의 전략적 가치를 두고 강대국들이 애정공세를 퍼붓는 황금의 땅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 달 <월드투데이> 말레이시아 편 19페이지 마지막 사진해설이 잘못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해설은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레이시아는 2005년 약 11억 달러 규모로 4대의 A400M을 주문한 바 있고 최근부터 인수를 시작했다. A400M은 강한 수송기전력 구축이 절실했던 말레이시아의 노력의 징징적 결실이라 할 수 있으며,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의 A400M 도입으로서 상징성도 크다.”

VIETNAM



Travel tip

F 주요 여행지

하롱베이 ‘하늘에서 용이 내려온 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롱베이는 유네스코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유명한 베트남의 필수 여행코스다. 석회암의 구릉 대지가 오랜 세월에 걸쳐 침식되어 생긴 섬과 기암이 애메랄드빛의 바다에서 위용을 나타낸다. 절벽을 이루는 크고 작은 섬과 동굴이 절경을 이룬다.

달랏 동양의 파리라고도 불리는 달랏은 다른 베트남의 도시들과는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20세기 초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할 당시 휴양지로 개발되어 아름다운 풍광을 유지하고 있다. 시내 중심에 있는 인공호와 호수 건너편에 에펠탑을 형상화한 철탑이 동양의 파리다운 면모를 뽐내는 곳이다.



대표 음식

쌀국수 쌀가루를 불린 다음 달구어진 판 위에 빙대떡처럼 얇게 펴 말리다가 떼어내 칼국수보다 가늘게 썬다. 숙주·칠리고추·고수·라임·양파·고기 등이 들어가 독특한 향과 맛이 나며, 소화가 잘 되고 칼로리가 적은 건강음식이다.

짜조 새우살, 저민 고깃살, 당면, 버섯 등을 라이스페이퍼에 싸서 바삭바삭하게 튀겨낸 요리로,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특히 베트남 생선소스인 느억맘에 찍어 먹거나 야채를 곁들여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

,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기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에는 온통 외로움과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인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한 걸음 더 내딛으며 나아가는 용기, 혹여 다시 뒤로 물러날지라도 일단 시도해보는 그 첫걸음은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는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곳곳을 다녔고,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무려 만 번의 실패를 겪었다고 합니다. 베토벤 또한 귀가 잘 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명곡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처럼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단번에 성공하기란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겠지요. 수만 번의 시도와 실패가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그 성과가 더욱 값진 것은 아닐까요?

안정된 일상과 생활에 익숙해지기보다는 하나하나 새로운 일을 찾아 도전해보세요.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서서히 자리바꿈을 준비하듯이 어느 것 하나 머물러 있으면 변화를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용기 있는 걸음만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으며, 그 길은 또 다른 이의 이정표가 되어 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비록 생각처럼 이어지지 않는 길이더라도 멈춰있기보다는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그 걸음걸음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한겨울의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 시속 200킬로미터의 바람이 부는 남극의 중심에 한 무리의 펭귄들이 몽쳐있습니다. 혹독한 기후의 해빙 위에 서 있는 수백 마리의 펭귄들은 서로의 몸을 밀착해 거대한 원형을 만들어 체온을 유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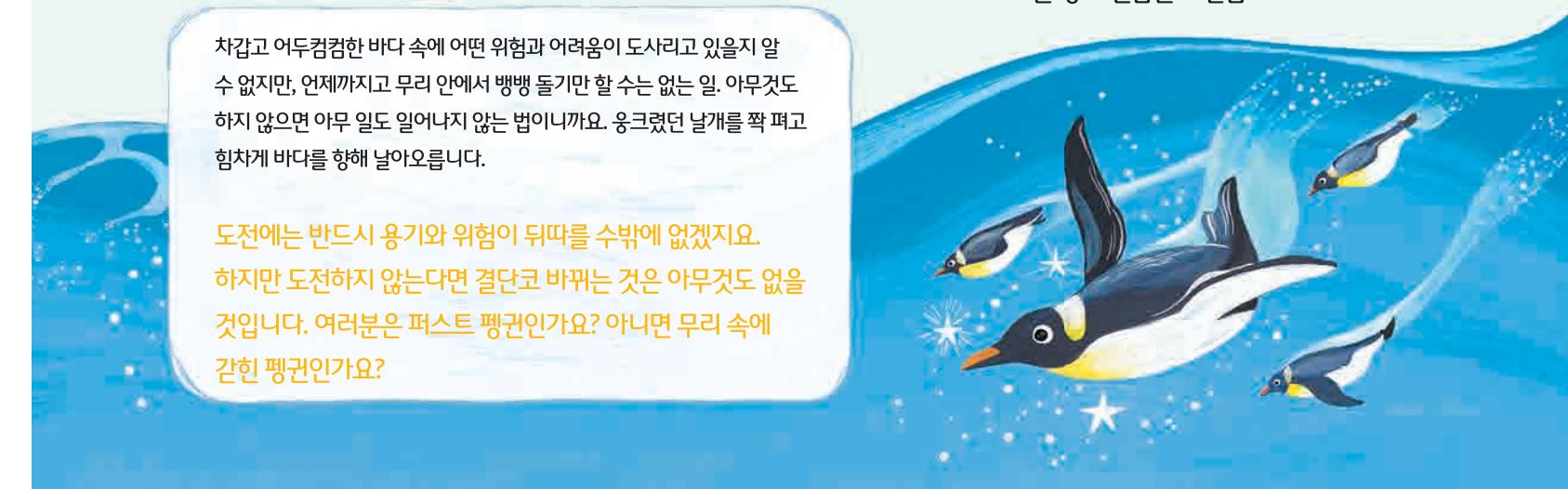
크릴을 먹지 않는 동물이 없을 만큼 경쟁이 치열한 남극 생태계. 하지만 크릴 사냥을 위해 덜컥 바다로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바다 속에는 펭귄의 천적인 표범, 해표가 숨어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차갑고 어두컴컴한 바다 속에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언제까지고 무리 안에서 뱅뱅 돌기만 할 수는 없는 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니까요. 웅크렸던 날개를 꽉 펴고 힘차게 바다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도전에는 반드시 용기와 위협이 뒤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도전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퍼스트 펭귄인가요? 아니면 무리 속에 갇힌 펭귄인가요?

암컷 펭귄과 새끼 펭귄 또한 천적 자이언트 패트롤의 무수한 공격을 피하며 아슬아슬하게 먹이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펭귄들은 서로 눈치만 보기 바쁩니다. 모두가 미루기만 하던 바로 그때, 불현듯 나타난 펭귄 한마리가 바다 앞으로 조금씩 다가섭니다. 살을 에는 바람을 온전히 맞으며 바다를 향해 걸음을 내딛습니다.



아이언 맨의 도전은 계속된다

미국에 있는 동안, 가끔 걸어서 15분 거리의 근처 쇼핑몰로 아이와 함께 산책하러 가곤 했다.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지붕이 뚫린 쇼핑몰을 산책하다 보면, 아이가 쓴살처럼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바로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 모터스가 쇼핑몰 안에 설치해둔 매장이다. 쇼핑몰 안에 자동차 판매장이 있다고?

그렇다. 휴대폰을 파는 애플 매장과 운동화를 파는 아디다스 매장 옆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테슬라 매장이 있었다. 매장 규모도 크지 않다. 한쪽에는 테슬라의 주력 자동차 '모델 S' 두 대(검은색, 빨간색)가 놓여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동차의 골격이 그대로 노출된 채 놓여 있다. 전기 자동차의 내부 구조를 궁금해 하는 소비자를 위한 배려다.

글 강양구 일러스트 신미래

세 살배기 아이가 직원의 제지도 받지 않고 테슬라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마치 아이패드처럼 생긴 액정 화면의 계기판을 이리저리 눌러보기도 하고, 앞뒤 트렁크를 열고 안에 들어가 보기도 하는 등 마치 놀이터에 온양 재밌어했다. (자동차 앞에 보통 설치된 엔진룸이 없는 텐데, 모델 S는 뒤뿐만 아니라 앞에도 물건 보관 트렁크가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전기 자동차를 세 살배기 아이가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걸 내버려두는 이유는 뭘까? 또 통상의 자동차 회사와는 달리 쇼핑몰 안에 매장을 설치하는 이유는 뭘까? 이 모든 것이 전기 자동차를 대세로 만들고자 하는 테슬라의 영업 전략이다.

아이언 맨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테슬라 모터스는 전 세계의 자동차 업체 가운데 도전 정신이 가장 돋보이는 기업이다. 비운의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딴 이 기업은 2003년 실리콘 밸리에서 탄생했다. 태생부터 테슬라는 제너럴 모터스나 현대자동차 같은 자동차 회사보다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정보 기술(IT) 기업에 가까웠다. 이런 테슬라에 가장 먼저 주목한 이는 영화 <아이언 맨>의 천재 과학자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다. 요즘 국내에서도 유행하는 온갖 '페이'의 효시 격인 페이팔로 돈을 많이 번 그는 테슬라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 최대 주주로 올라선 다음, 아예 CEO로 취임한다. 그리고 나서, 테슬라의 혁신을 앞장서서 지휘한다.

물론 테슬라 이전에도 전기 자동차는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선보인 전기 자동차는 실용성이 떨어지는 독특한 모양이 대부분이었다. 자동차로 물고 다니기에는 주행 거리가

짧고, 배터리 충전 시간이 길고, 또 커다란 자동차 배터리 때문에 모양도 특이할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 회사 차원에서도 전기 자동차를 팔아서 이익을 남길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테슬라는 달랐다. 우선 휘발유나 경유로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에 못지 않은 성능을 내세웠다. 2012년에 테슬라가 아심 차게 내놓은 모델 S는 한 번 충전으로 시속 100km의 속도로 최대 약 407km를 달린다. 그러니까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문제없이 달릴 수 있다. 이 정도면 시내 주행용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급 자동차 뺑치는 전기 자동차

더 인상적인 것은 고급 세단 뺑치는 디자인이다. 미국에 살면서 시내에서 온갖 종류의 외국 자동차를 직접 보고 비교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테슬라의 모델 S였다. 자동차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이라도 누구나 한 번쯤 눈길을 돌릴 만한 멋진 디자인을 내세운 것이다.

그간 전기 자동차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충전 시간문제도 해결했다. 테슬라는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1~2시간 정도 걸려서 4~5시간 이상 걸리는 충전 시간을 단축했다. 최근에는 아예 1분 정도에 걸쳐서 배터리 자체를 교체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또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는 자동차 충전에 들어가는 전기를 평생 공짜로 제공한다.

테슬라 자동차를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가 전부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전기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전기를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태우는 화력발전소나 처치 곤란한 방사성 폐기물을 내놓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얻는다면 전기 자동차가 '무공해 자동차'라는 이미지가

무색해진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이런 비판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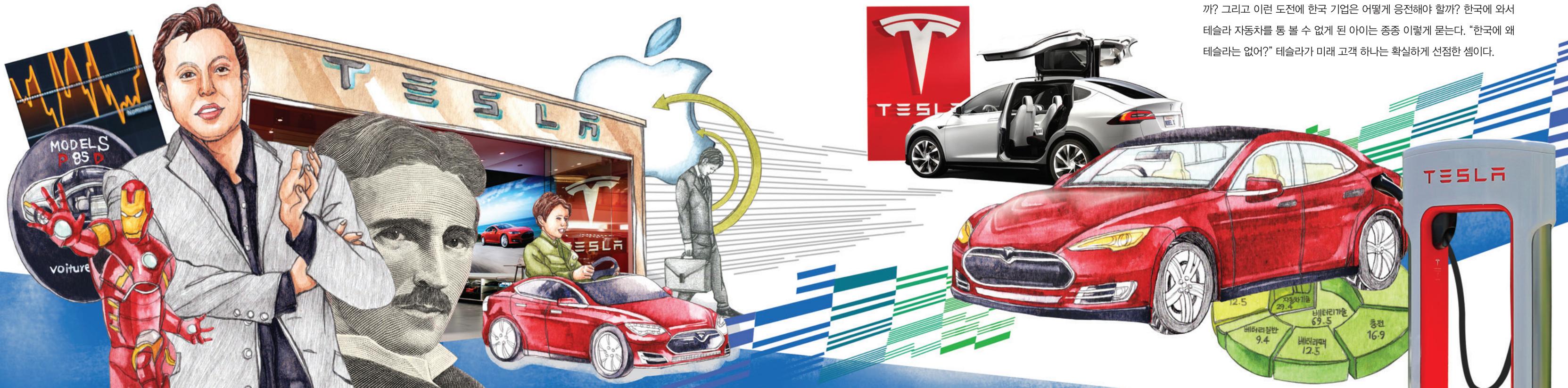
일론 머스크는 2014년 6월 12일,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특허를 모두 무료로 공개하겠다고 발표해 전 세계를 한 번 더 놀라게 했다. 테슬라가 그런 특허를 독점하기보다는 기존의 자동차 업체를 비롯한 여러 기업이 전기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 모티프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행보에는 그렇게 전기 자동차 시장이 커질수록 테슬라도 더욱더 성장 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 또 특허를 공개하더라도 테슬라가 이미 선점해 놓은 전기 자동차 기술을 후발업체가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확신이 깔려 있다. 실제로 테슬라는 2015년 모델 S에 이어서 고급 SUV 모델 X를 내놓는 등 새로운 도전을 계속 진행 중이다.

"테슬라에 입사하지 못하면 애플 가!"

구글, 애플 등과 같은 IT 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동차에 주목하면서 테슬라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애플은 전기 자동차 프로젝트(프로젝트 타이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테슬라에서 직원을 빼가면서 입방 아에 올랐다. 그러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일침을 놓았다.

"테슬라에 입사하지 못한다면 애플에 가시면 됩니다!"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으로 생각되는 애플도 테슬라의 한수 아래라는 자신감이 엿보이는 반응이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도전은 어디까지 계속될까? 그리고 이런 도전에 한국 기업은 어떻게 응전해야 할까? 한국에 와서 테슬라 자동차를 통 볼 수 없게 된 아이는 종종 이렇게 묻는다. "한국에 왜 테슬라는 없어?" 테슬라가 미래 고객 하나는 확실하게 선점한 셈이다.



최종조립생산팀5직 안윤석 조장 현재를 즐기는 남다른 자부심

글 노초룡, 구보람 과장
사진 이재범

발전해가는 기술력을 몸소 경험하다

드릴링(Drilling)의 달인으로 선정된 안윤석 조장은 F-16 최종 동체조립을 시작으로 T-50 최종 동체조립 10년, KUH 최종 조립까지 이어오며 총 24년 동안 항공의 역사를 함께 해온 장본인이다. 사천 공장이 지어진 이후 가장 오랫동안 전, 중, 후방 최종 동체조립 드릴링 작업을 수행한 동체조립 작업의 산증인으로 현재는 조장으로서 조원들을 이끌며 일정을 맞춰나가고 있다.

“각 동체별로 제대로 맞지 않으면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섬세한 작업입니다. 그동안 F-16이나 T-50은 공간이 협소해서 작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KUH는 비교적 공간도 넓고 작업 여건이 좋습니다. 단계별로 최종 조립 업무를 맡으며 우리 회사의 기술력이 점점 발전해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뿌듯합니다.”

말 그대로 최종 조립인 만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때도 있다. 하나로 연결시켜 놓고 나서 공차가 발생하는 것이 그 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거나, 미세한 조정을 통해 하나로 정교하게 만



41호

안윤석 조장
최종조립생산팀5직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Y.S



들어야 한다. F-16, T-50 등 다양한 기체를 거쳐 온 안 조장은 초기 설계시절보다는 공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덧붙인다. 예전에는 손과 눈 짐작으로 맞춰나가야 했지만, 이제는 FASS(전자레이저 시스템)를 통해 0.1mm의 공차까지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여건이 훨씬 좋아진 것이다.

드릴링과 조립 업무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안윤석 조장은 T-50 개발 초기부터 참여해 직접 만든 T-50이 첫 비행하는 것을 보며 남다른 애정을 느꼈다. 지금은 우리의 차기 주력기종인 수리온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보람을 느낀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과감한 도전 정신으로 나아가다

세심한 업무를 맡아 진행하는 안윤석 조장은 누구보다도 꼼꼼한 성격을 지녔다. 품질에 가장 신경을 쓰다 보니 몇 번이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일 터. 품질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작업 환경이 편안해질 수 있는 노력 또한 놓치지 않는다. 특히 후배들에게 “겁먹지 마라”는 조언을 하곤하는데, 스스로 체득하며 나아가야 하는 직종이므로 용기가 더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드릴링이나 조립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곧 동

체 결함으로 이어지므로 어마어마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감에 정체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겁먹지 말고 도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감하게 나아가야 다음 기회도 다가오니까요.”

안윤석 조장이 마음에 새기며 임한다는 ‘참을 인(忍)’은 그의 꼼꼼함과 집중력, 도전정신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매 순간 빼놓지 않은 것이라면 바로 즐겁게 업무에 임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드릴링과 조립에 있어서 최고라는 자부심에서 나오는 행복감이 지금의 안윤석 조장을 만들었다.

“현재를 즐기며 제 일을 할 수 있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꾸준히 제 분야에서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KF-X의 최종 조립에 함께 하면서 제 노하우를 접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필
41호 달인

이름 안윤석
부서 최종조립생산팀5직
직급 조장
입사 1990년 입사
경력 조립 24년, 기계가공 2년
주업무 KUH 최종 동체조립

FLY NEWS

4인승 '하늘을 나는 차' 2년 내 나온다



2년 후 목적지만 입력하면 날아서 원하는 곳에 착륙시켜 주는 자율주행 방식의 하늘을 나는 차(Flying car)가 나온다.

데일리메일은 지난 2월 20일 미국 테라푸가사가 2018년 완성을 목표로 하늘을 나는 4인승 차(모델명 TF-X)를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2024년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차량은 약 26만 1천 달러(3억 2천만 원)에 팔릴 전망이다. 테라푸가사가 만든 하늘을 나는 차 최신형은 최근 미 위스콘신주 오시코시에서 열린 항공행사에서 발표됐다.

TF-X는 승객들이 이를 전 목적지만 입력시켜 넣으면 컴퓨터 제어방식으로 목적지까지 자율비행 한다. 이 자동차는 최대속도 322km/h로 한 번에 최대 805km까지 날 수 있다. 다른 비행기, 악천후 등을 만나면 스스로 이를 피해 운행한다. 모터는 수직 이륙 후 수평으로 날 수 있게 해주며 300마력의 출력을 갖고 있다. 배터리 충전은 자체 엔진을 사용하거나 지상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게 된다.



보잉 vs 에어버스, 중국 수주 경쟁 본격화

미국과 유럽의 항공업계 양대 라이벌이 중국 시장을 두고 정면 승부에 돌입했다. 중국 지도부가 지난 3월 5일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에서 항공우주산업을 중요 산업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향후 중국 수주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에어버스는 텐진에 A330 항공기 최종 조립 센터를 건설했다. 이미 에어버스는 10년 전에도 중국 내에 항공기 조립공장을 건설한 바 있다. 미국 보잉사는 중국 내에서 항공기 최종조립을 담당하는 시설을 짓기 위해 현재 용지를 물색하고 있다.

양사가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배경에는 20년 후 중국이 세계 최대 항공여객 시장이 될 것이란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정치적 요인, 고객사와의 거리가 가깝다는 요인도 있다. 에어버스와 보잉사는 중국 항공사로부터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를 수주하고 있어 일부 조립 과정을 중국 현지에서 진행하면 기존 시설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다 중국 시장 선점에 유리한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대형 전략수송기 '원-20' 올해 실전배치할 듯

중국이 자체 제작한 대형 전략수송기 '원(運·Y)-20'이 올해 실전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다.

지난 3월 2일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군사전문가 쉬웅링(徐勇凌)은 최근 이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원-20이 올해 배치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가 지난 연말 "2015년 대형수송기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원-20이 시험평가를 마친 뒤 2016년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3년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원-20은 당초 2017년께 실전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원-20은 최대 이륙중량 220t, 최대 적재량 66t, 항속거리 7천800km, 최대속도 700km/h로 대형 수송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평가되는 미국의 C-17을 겨냥해 개발됐다. 원-20이 실전에 배치되면 중국 공군의 작전 반경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쉬웅링은 "원-20의 개발로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200t급 이상의 대형수송기를 보유한 나라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차세대 전략폭격기 정식 명칭은 'B-21'

미국이 최대 800억 달러(약 100조 원)를 들여 개발할 차세대 전략폭격기(LRSB)의 정식 명칭이 'B-3'가 아닌 'B-21'로 정해졌다. 지난 2월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공군은 데보러 리 제임스 공군장관이 이날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열린 군사 토론회에서 LRSB의 이름과 개념도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념도만으로 본다면 차세대 폭격기는 현재 미군이 운용하는 'B-2' 스텔스 폭격기와 겉보기에 큰 차이가 없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노스롭그루먼을 LRSB 사업자로 선정했고, 앞으로 80~100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공군은 2020년대 중반에 'B-21'의 시험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임스 공군장관은 "B-21은 처음부터 기존 군사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설계됐다"며 'B-21'의 외형이 현재의 최신예 전략폭격기 'B-2'와 비슷한 이유를 설명했다. 'B-21'의 별명은 현재 공군 장병들을 상대로 공모 중이며, 올해 가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제임스 장관은 덧붙였다.

러시아, 향후 5년간 수호이 전투기 200대 수출

향후 5년 동안 러시아가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되는 수호이(Su)-35 전투기를 포함해 수호이 전투기를 최소 200대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5일 러시아 스포트니크는 "향후 5년간 러시아가 수호이 기종의 전폭기 200여 대 이상 수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Su-34 가격이 6000~7000만 달러(866억 원), Su-35 전투기 한대 당 7000만 달러로 계산하면 그 수출규모는 100억 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중국에 Su-35 전투기 24대를 수출하는 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중국은

올 4분기부터 Su-35 첫 인도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알제리, 베트남, 인도, 이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벨라루스 등이 수호이 기종의 구매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 공군도 Su-35 5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하면서 오는 2021년까지 러시아 공군이 보유하게 될 Su-35 전투기는 최소 96대가 된다.



미 공군, 5년 내 전투기에 레이저 발사기 장착

미국이 방어용 레이저 발사 장치를 장착한 전술 전투기를 5년 내에 배치할 계획이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DN)는 미 공군 연구실험실(AFRL)의 그雷그 자카리아스 실장의 말을 빌려 미 공군이 이르면 5년 내에 전술전투기에 레이저 발사 장치를 장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2월 21일 보도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기술 수준이 특히 스텔스와 유도무기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바짝 따라붙은 데 자극받아 레이저 발사 전투기와 무인 시스템 등 최첨단 장비를 통해 두 경쟁국과의 격차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자카리아스 실장은 내년도 공군의 25억 달러(3조 85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요구안에 담긴 '미래형 공군' 청사진 가운데서도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이 레이저 발사 전투기라고 강조했다. 영화 '스타워즈'에서 볼 수 있는 이 레이저 발사 전투기 계획과 관련해 어떤 기종에 레이저 발사 장치를 설치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KFX항전HW팀
박경대 책임연구원 가족
**“새콤달콤한
딸기 농장으로
놀러오세요~”**

아직 꽃샘추위가 가시지 않은 3월 초,
'딸기'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예쁜 두
딸을 위해 박경대 책임연구원이 나섰다.
사천에 있는 비봉내체험마을의 딸기농장에서
이른 봄을 맞이하기로 한 것.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딸기만큼이나 새콤하고 달콤했던
그 날의 봄바람을 여기 담았다.

글 노초록 사진 이재범



유기농으로
기르는
딸기인 만큼
농장에서
따는 즉시
씻지 않고
먹어도
안전하니
아이들은 물
만난 물고기
마냥
딸기밭을
이리저리
활보하며
신이 났다.



딸기를 뚝 따서 한입에 쑥~

박경대 책임연구원 가족의 봄나들이를 시샘이라도 하듯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이좋게 우산을 쓰고 비 봉내체험마을에 도착한 박경대 책임연구원과 아내 강희정 씨, 그리고 예쁜 두 딸 서현이와 서영이. 설레는 마음으로 딸기밭 하우스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코끝으로 진한 딸기향이 가득 퍼진다.

“우와, 달콤한 딸기향이 가득하네. 서현이와 서영이 오늘 딸기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엄마의 응원이 더해지자 두 아이 또한 “진짜 딸기가 벌써 이렇게 열렸네”, “얼른 봐보고 싶어요~” 라며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어진다.
봄철 대표 과일 딸기를 이른 봄에 수확하기 위해서는 따뜻하게 설정한 비

닐하우스에서 재배해야 한다. 비가 내려 쌀쌀한 밖의 온도와는 달리 훈훈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본격적으로 딸기 수확이 시작되었다.

체험 농장의 사장님이 딸기를 담을 플라스틱 상자를 나누어 주면서 설명 한다. “딸기는 여러 줄기에서 자라나는데, 줄기 채로 뽑으면 다음 딸기가 영글지 못하므로 딸기 열매만 뜯고 뽑으면 된다. 딸기를 잡고 위로 살짝 들어서 돌리면 쉽게 딸 수 있어요. 맛있게 먹으면서 재밌게 따보세요~” 유치원에서 딸기 농장 체험을 한 적 있다는 서영이가 자신 있게 딸기밭으로 성큼성큼 들어간다. 바구니에 하나 채우자마자, 또 하나는 따기가 무섭게 줄곧 입으로 향한다.

“아이들이 딸기를 참 좋아해서 사다 놓고 나서 어느 샌가 보면 금세 없어지고 말아요.”

오물오물 딸기를 한 입에 먹는 모습이 귀여운지 박경대 책임연구원이 연신 눈길을 보탠다.

서현이는 마치 농장주라도 된 것처럼 딸기를 따는 손길이 신중하다. 딸기밭에서도 가장 알이 굵고 빨간 것들만 골라서 바구니에 차곡차곡 쌓아 넣는다.

유기농으로 기르는 딸기인 만큼 농장에서 따는 즉시 씻지 않고 먹어도 안전하니 아이들은 물 만난 물고기 마냥 딸기밭을 이리저리 활보하며 신이 났다.

플라스틱 바구니를 점검하자 과연 서현이의 딸기는 크기로 1등, 서영이의 딸기는 빨간 색깔로 1등이다. 아이들이 딸기에게 감탄하는 박경대 책임연구원 부부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진다.

아빠, 엄마와 함께 만드는 딸기잼 & 딸기인절미

딸기 수확이 끝나자 이번에는 농장 근처에 있는 체험장에서 딸기잼과 딸기인절미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신선하게 딸기를 맛보았으니 딸기잼에도 의욕이 생솟는다. 우선 꼭지를 딸기를 잘 씻어 냄비에 넣고 중불에 끓이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아직 13살, 11살인 서현이와 서영이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불을 사용하는 것은 처음. 함께 하는 체험이라 앞치마에 머릿수건까지 매주었지만 아빠, 엄마는 쉽게 주걱을 내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서현이와 서영이는 처음 해보는 체험이 마냥 신기해 딸기를 끓이는 내내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관찰하고 집중하는 모습이다. 딸기가 줄을 때까



지 계속 저어주어야 하는 데다 자칫 방심하면 금세 타버리고 마니 부지런히 주걱을 내젓는다.

“아빠! 엄마랑 언니가 더 빠르잖아요. 더 속도를 내야겠어요.”

아빠랑 팀을 이뤄 딸기잼을 만드는 서영이가 엄마와 언니의 잼을 보더니 마음이 조급한 모양.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걱을 휘휘 저으며 잼 만들기에 열중이다. 딸기가 줄면서 거품이 생기면 걷어내고 젓다가, 어느 정도 줄았다 싶으면 설탕을 넣고 다시 약한 불에서 끓여 주면 된다.

제법 모양이 갖춰지니 못 참겠다는 듯 손가락으로 잼을 콕 찌어 맛을 보는 서현이. 그러더니 엄마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직접 만든 딸기잼이 그럴싸하니 신이 나는지 아빠와 동생 서영이가 만든 잼과도 비교하기 바쁘다. 그 와중에 박경대 책임연구원은 혹여나 아이들이 냄비에 손을 데지는 않을까, 다칠까 염려하며 쟁기기에 여념이 없다.

“아이들에게 정말 자상한 아빠예요. 딸들이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는 ‘딸바보’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는 점이 참 고마워요.”

남편 박경대 책임연구원에 대한 칭찬을 덧붙이는 아내 강희정 씨. 스무살 대학 시절 미팅에서 만나 스물아홉에 결혼한 두 사람은 그래서인지 오랜 친구처럼 알콩달콩하다.

늘 지금처럼 행복이 충만한 가정으로

걸쭉하게 완성된 잼을 유리병에 담고 나니 이번에는 딸기인절미가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미리 반죽이 된 딸기인절미에 고소한 콩가루를 잘 버무려 입힌 뒤 절게 썰어주기만 하면 된다. 위생 장갑을 낀 아이들은 저마다 얼굴에 콩가루를 묻히고 떡과의 씨름을 시작했다.

“따뜻하고 쫄깃해서 맛있어요. 내가 먹을 거니까 더 작게 썰어야지.”

그러면서도 중간 중간 따끈한 인절미를 입 속으로 서로 먹여주며 쟁기는 것도 잊지 않는다.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는 첫째 서현이와 그림을 잘 그리는 둘째 서영이. 한창 하고 싶은 것도, 꿈도 많은 나이라 얼마 전, 아이들을 위해서 다녀온 대구 리틀소시움에서 법원을 비롯한 경찰서, 소방서 등 여러 직업 체험을 해보았단다. 벌써부터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꿈을 가진 서현이와 꿈보다는 애교가 더 많은 서영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면 또래 아이들과 다름 없지만, 각자 할 일은 알아서 아무지게 잘하는 기특한 점도 있다고 박경대 책임연구원 부부는 입을 모아 자랑한다.



아이들과 함께 농장 체험에서 수확한 딸기와 직접 만든 딸기잼, 딸기인절미를 모아놓고 보니 벌써부터 다음 나들이가 기다려진다. 많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을 테니 말이다.

아이들과 함께 농장 체험에서 수확한 딸기와 직접 만든 딸기잼, 딸기인절미를 모아놓고 보니 벌써부터 다음 나들이가 기다려진다. 많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을 테니 말이다. 박경대 책임연구원과 아내 강희정 씨는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며 마치 짠 것처럼 똑같은 소감을 남겼다.

“항상 이렇게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더 바랄 게 없지요.”



비봉내체험마을

비봉내마을은 바다와 산 그리고 물과 강 등 풍부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농촌 체험마을이다. 봄에는 미을 앞으로 조성된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딸기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미을 뒤편에 조성된 대나무밭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대나무숲 사이로 난 산책로는 산림욕장으로도 인기가 많다. 자연을 테마로 한 사계절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 색다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주소 경남 사천시 곤양면 상정마을길 139 문의 055-854-5111 홈페이지 www.beebong.co.kr
가격 딸기따기(500g) 10,000원, 딸기잼 만들기(350g) 10,000원, 딸기인절미 만들기 5,000원



Strawberry Jam



딸기는 꼭지를 떼고 깨끗이 씻어 물기를 없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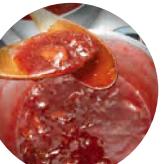
냄비에 딸기를 넣고 중불에 끓인다.



딸기가 1/3~1/2쯤 줄었을 때 설탕과 소금을 넣고 약한 불에서 끓인다.



걸쭉해질 때까지 계속 나무 주걱으로 저어 준다.



완성된 잼은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 보관한다.





제품은 정성으로! 혁신은 열정으로!



기체공정관리팀

새로운 간판과 함께 하는 산뜻한 출발

지난 2월 22일 기체생산1실 및 사내 관련팀 40여 명은 부품동 중앙현관에 모여 부품동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낡은 간판을 새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설치된 지 오래되어 오염된 간판을 새로 교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새로운 문구를 공모하였고, 그 결과 총 56건이 접수되는 등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다. 부품동의 열정과 미래 비전을 담은 문구를 공모한 가운데 부품동만의 현장 문화를 표현하는 강한 이미지가 담긴 문구 6건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입구 간판에는 '제품은 정성으로! 혁신은 열정으로!'라는 문구가 설치되었다. 한편, 간판을 교체하여 설치한 이날은 마침 정월대보름으로 직원들은 기념 촬영을 마친 후에 부품동의 안전과 발전을 기원하며 함께 대보름떡을 나눠 먹는 행사로 마무리하였다. 부품동만의 현장 문화를 표현하는 강한 이미지가 담긴 상징성 있는 문구 공모에 기체생산1실의 직원 모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조직활성화 모범사례 **화합하며 내일을 준비하다**

팀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팀워크를 돈독하게 해주는
조직활성화 모범사례가
발표되었다. 그중에서도
참여도와 파급성, 참신성과
계획성, 흥보성 등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준
기체공정관리팀과 비행성능팀,
장비개발직의 우수한
모범사례를 소개한다.

정리 노초롱

한라산의 정기를 받으며 다진 힘찬 각오

지난 1월 7일 장비개발직에서는 팀의 단합을 위해 한라산 산행과 함께 신년행사를 진행하였다. 함께 땀 흘리며 한라산의 정기를 받아 직원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해 업무도 공유하며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야구 경기를 관람하거나 족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돈독한 팀워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던 장비개발직은 한라산 등반으로 더욱 끈끈한 동료애를 다지게 되었다.

강준열 주임기술원 ● 겨울 산행 등반 후 장비개발직 단합이 더욱 굳어진 것 같습니다. 날씨는 춥고 힘들었지만 구성원이 같은 마음으로 산행하며 돈독해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멋진 후배로 남고 싶습니다. 선배님들 모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배경호 조장 ● 무엇보다도 조직 간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2조 업무 및 항공기계 통보전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맑은 바 업무에 충실히 올해도 아무 탈 없이 잘 보내겠습니다.

김삼수 수석기술원 ●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꾸준한 노력과 경험을 더해주면 후배들에게 큰 자산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역량과 기술,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하고 싶습니다.

장비개발직



서로에게 길이 되어 준 1:1 멘토링 제도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비행성능팀은 KT-X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신입사원들의 전력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행체 설계와 관련한 선배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2개 월간의 비행체설계실 OJT를 실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OJT에는 신입사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나갈 수 있도록 1:1 업무 멘토링 제도도 함께 운영하였다.

특히 OJT 자료는 해당 업무에 투입되어 있는 선배들이 직접 작성하여 일반적인 교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까지 세세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배들 역시 자신의 업무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발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다른 팀에서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OJT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방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업무 멘토링으로 가르치고 같이 진행하다보니, 신입사원들의 업무 이해와 몰입도가 매우 뛰어났으며, 앞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깊이 있게 배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비행성능팀



송태훈 선임연구원 ● 각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기초부터 실제 사례에 적용한 업무까지 폭넓게 소개하면서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재완 책임연구원 ● OJT를 통해서 내 업무와 다른 부서의 업무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더 정확히 알게 된 자리였습니다. 열정 가득한 눈으로 경청하고 왕성한 호기심으로 질문하는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과 앞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보다 자세히 알게 되어 업무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재현 연구원 ● 업무에 대한 중요성과 책임감이 느껴졌고 특히 이론과 함께 실무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업무를 빠르게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토의 정확하고 확실한 조언이 팀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윤현민 연구원 ● 우리 팀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OJT 교육에서는 비행체설계실 내에 정말 다양한 업무 파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파트들이 서로 협력하고 잘 연계되어야 KF-X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체생산1팀2직 “이태리 장인보다 낫지 말입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이 펼친 세기의 대국을 보면 전 세계가 인공지능(AI)에 주목했다. 산업현장에서 AI의 역할은 이미 상당하다. 하지만 제 아무리 AI라도 아직까지 ‘남사벽’이 존재한다. 한 땀 한 땀 손으로 완성하는 장인의 손길. 기체생산1팀2직이 소수정예의 장인집단인 까닭이다.

기획 배화윤 차장 글 정영아 사진 이제범

용호상박(龍虎相搏). 장인의 손길

강상희 직장 지휘 아래 3개 조, 총 25명이 근무하는 기체생산1팀2직의 업무 시스템은 흡사 ‘기체생산1팀2직’이라는 울타리 안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3개의 연방연합 같다. 조마다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조장을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강기영 조장이 이끄는 1조는 대부분의 공정을 수공구를 통해 사람이 직접 작업한다. 기계가 따르지 못해 불량이 날 여지가 많은 작업을 수행한다. 당연히 고숙련자가 대부분이다. 경력이 부족하면 100% 불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초정밀 작업인 탓이다. 하여 고참 직원들은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OJT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조영국 조장이 이끄는 2조는 CMM(Coordinate Measuring Machine), 즉 3차원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사람의 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초정밀 단위를 특수 장비를 통해 측정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가공 완료된 제품 및 치공구의 윤곽과 정밀 훌(Hole)의 위치를 측정하고, 제품 표면의 강도를 높여주는 쇼트 피닝(Shot Peening) 공정을 수행한다.

그리고 김한철 조장이 이끄는 3조는 항공기 부품의 특수 용접을 전문으로 담당한다. 항공기 제작에 있어 용접 작업이 많지는 않지만 항공기의 안전과 직결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대부분을 KAI 내에서 소화한다.

그야말로 용호상박이다. 기체생산1팀2직은 마치 섬세함의 대결이라도 하듯, 시계 바늘을 움직이기 위해 정확한 각도와 위치에서 톱니바퀴가 맞



범용 장비, 즉 매뉴얼 장비를 다루는 1조는 NC 가공품의 전 공정인 범용 공정과 수작업 기계 기공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작업자들의 손끝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은 기본이다.



기체생산1팀2직은 마치 섬세함의 대결이라도 하듯, 시계 바늘을 움직이기 위해 정확한 각도와 위치에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따로 또 같이 움직이다. 그 동력으로 기체생산1팀2직은 직원이 연간 1,800오더를 작업한다.



3차원 측정 장비인 CMM 장비를 이용해 가공 완료된 제품 및 치공구의 윤곽과 정밀 훌 위치를 측정하는 정밀 공정을 수행하는 것이 2조의 주요 업무다.

물려 돌아가듯, 따로 또 같이 움직이다. 그 동력으로 기체생산1팀2직은 직원이 연간 1,8000오더를 작업한다. 그에 따른 피스가 6만 여 종이다. 명품 항공기로 완성하기 위해 '명품 부품'을 만들기 위해 혼을 담는 25명의 장인들이기에 가능한 생산량이다.

이러한 장인정신 덕분일 것이다. 2015년 기체생산1팀2직은 상복이 터졌다. 강상희 직장은 "원 없이 누렸다"고 말했다. 현재 KAI에는 40직이 있고 생산 분야는 30직이다. 매달 실시하는 직 평가에서 최우수직 1회, 우수직은 5회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뿐만 아니라 2/4분기에는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그리고 습관화) 우수직을 수상했다. 매년 1회 평가하는 안전평가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했다.

"직 평가는 작업능률, 품질 문제, 안전, 환경, 보안 등 현장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장님들을 비롯해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준 덕분이죠. 전 그냥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강상희 직장은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기 위해 지난 추석과 명절을 맞아 상금을 나눴다. "비록 큰 선물은 아니지만 일 년 동안 함께 일한 노고를 뿌듯하게 나눌 수 있어서 더없이 즐거웠다"고 말했다.

"정말 2015년은 우리 기체생산1팀2직에게는 뜻 깊은 한 해였어요. 직원들의 자부심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런 영광이 또 언제 올까 싶었는데 새해가 되니까 다시 욕심이 생기네요."

강상희 직장의 바람처럼 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이룬 영광이고, 더불어 모두의 자부심이 한껏 올라갈 수 있다면, 이런 욕심쯤은 한껏 부려도 되지 않을까 싶다.



- 1 2조는 기체생산팀2직 3개 조 중 가장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정예답게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고숙련자들로 포진되어 있다.
- 2 2조는 완제품 조립 전 마지막 공정을 담당한다. 완제품 조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과정이다.
- 3 2조에서 수행하는 쇼트 피닝은 제품 표면의 강도를 높여주는 작업이다. 숙련자들의 세심한 공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상부상조(相扶相助). 배려의 미덕

범용 장비, 즉 매뉴얼 장비를 다루는 1조는 한마디로 상부상조(相扶相助)의 미덕을 실천하는 조다. NC(Numerical Control; 수치 제어 장치) 작업 후 반제품 상태의 가공품을 범용 공정에서 수공 구 작업과 범용장비를 이용하여 가공 과정의 완제품으로 마무리하는,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작업자들의 손끝에서 작업이 완성되다 보니 숙련된 기술은 기본이요,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NC장비의 다축 수치 제어 장비가 있습니다. 이

것은 프로그래밍 작업입니다. 사전에 입력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이 작업은 기술 부서의 협력으로 가동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저희 조는 매뉴얼 장비입니다. 즉 작업자들의 손끝에서 조작되는 장비죠. 때문에 작업자들의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적용되는 공차 부분도 NC 장비와는 달리 작업자 손끝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죠."

강기영 조장의 말처럼 1조가 수행하는 가공 작업은 항공 단위로 만분의 5inch를 적용하는 작업이다. 미리 단위로 환산하면 백분의 1~2mm 정도다. 쉽게 말해서 머리카락 굵기의 1/7~1/8 정도로 보면 된다. 그런 단위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기술이 상당해야 한다. 그러한 작업 특성으로 1조는 경력이 30년 이상인 고숙련자들이 직접 장비를 조작한다. 아직 막내급인 3~4년 된 직원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고난이도 작업이다. 하여

1조는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강기영 조장과 숙련된 고참들이 OJT에 심혈을 기울인다.

"고참 직원들의 숙련된 OJT와 신입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 덕분에 진도가 아주 빨라요. 기본적인 작업은 불량 없이 잘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선배와 후배들의 서로 배려하는 팀워크 덕분일

것이다. 또 1조는 기계적인 프로그래밍이 아닌 작업자의 기술로 수행하는 작업이다 보니 또 하나의 특수성을 띈다. 기계는 입력된 수치에 의해서만 작업을 하지만 사람이 손수 하는 작업이다 보니 작업 중 다양한 아이디어가 들어간다. 순수하게 양산 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항공기 조립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조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양산 작업뿐 아니라 보조 작업도 병행하다 보니 작업무가 많습니다. 때문에 평소에 동료들끼리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없으면 업무가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조장으로서 직원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숙련된 고참들과 열정의 후배들 그리고 배려와 이해의 마음으로 이끄는 강기영 조장의 시너지 덕분일 것이다. "1조는 불량률이 거의 없는, KAI가 보유한 인적자랑"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강기영 조장의 말이 더욱 단단하게 와 달았다.

솔선수범(率先垂範). 주인의 자세

기체생산팀2직 3개 조 중 가장 적은 인원인 7명으로 구성된 2조는 기본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숙련자 집단이다. 한마디로 소수정예군단이다. 3차원 측정 장비인 CMM(Coordinate Measuring Machine) 장비를 이용하여 가공 원료된 제품 및 치공구의 윤곽과 정밀 훌(Hole)의 위치를 측정하는 정밀 공정을 수행한다. 낯선 CMM 장비는 주로 항공기 부품이나, 임펠러(Impeller), 블레이드(Blade)와 같은 항공요소 제품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로, 다른 산업과는 달리 요구사항이나 측정방법이 매우 까다로운 분야 중에 하나다. 전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의해 제품별 이상이 있을 경우 CMM 장비로 부품의 크기 및 조립성을 판단할 수 있고, 도면에서 규정하는 크



기와 허용 공차를 감안해 제품의 합격, 불합격을 판단할 수 있다. 현재 2조에서는 5대의 CMM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CMM 장비 도입 덕분에 2조는 측정 능률이 훨씬 향상되었다. 이전까지는 전반상에서 면과 축 설정 등 사전 작업에 많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컴퓨터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작업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업무가 강도나 중요도가 줄어든 건 아니다.

"CMM 장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적정온도인 20°C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작업에 불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또 모든 공정에서 중요하지 않는 공정은 없겠지만, 우리 조가 하는 작업은 완제품 조립 전 마지막 공정입니다. 이 공정에서 불량이 나오면 조립에 영향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무척 예민한 작업이죠."

하여 조영국 조장은 모든 직원들이 "내가 책임진다"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작업에 임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조에서는 쇼트 피닝(Shot Peening) 공정도 수행한다. 제품 표면의 강도를 높여주는 작업이다. 쇼트라고 불리는 작은 금속 입자를 고속으로 제품표면에 투사하여 작은 쇼트 입자가 표면을 해마링, 즉 두드리는 공법이다. 이 역시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되지만 숙련자들의 세심한 공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작업이다.

"조장 중 제가 가장 막내입니다. 그래서 조원들 중에는 선배들도 있습니다. 저 또한 CMM 장비 작업을 현장에서 계속 하다가 조장이 되었기 때문에 조원이라기보다는 선배고, 동료들이죠. 그래서 조장으로서 원기를 지시한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먼저 움직이려고 합니다."

같은 업무를 해온 현장 경험자이기에 누구보다 조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아는 조영국 조장의 솔선수범으로 오늘도 2조 현장은 '이상무'다.

자강불식(自強不息). 끊임없는 노력

김한철 조장이 이끄는 3조는 특수용접(Welding)을 담당한다.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등의 특수용접을 하는 기술이다. 하여 김한철 조장은 신입사원에게 가장 먼저 특수용접에 대한 설명부터 한다. 일반 산업 현장이나 건설 현장, 철공소나 공업소에서 익히 접하던 용접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저희가 수행하는 항공기 특수용접은 일반 현장에서 하는 불꽃이 딱딱 튀는 용접과는 달라요. 레이저 빛 같은 빛으로 하는 정밀 특수용접입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에게 용접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OJT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놀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조가 수행하는 특수용접은 항공기 부품 중 항공기 내부에 들어가는 튜브(Tube)의 용접이다. 사람의 인체 내장기관처럼 항공기도 내부에 물과 공기 그리고 연료 등을 공급하는 관이 있다. 그것을 투브라고 한다. 긴 투브가 하나로 이어진 상태로 항공기 내부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3조에서는 투브를 섹션별로 나눠 만들어서 정밀하게 용접한다. 김한철 조장의 말처럼 항공기 특수용접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세밀한 내장기관을 붙이는 작업에 비유할 수 있다. 또한 불꽃이 딱 튀는 용접이 아닌 레이저 포인터 정도의 빛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분야다. 특히 내부 부품 용접이기 때문에 항공기 안전에 가

장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분야라 더욱 신중한 작업이기도 하다. 때문에 품질에 대한 긍지와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작업이다. 이러한 업무 특성 때문에 항공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다. "미국용접학회(AWS)에서 항공용접을 위한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 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만 용접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인장이 있는데, 용접 작업이 끝나면 지시서에 인장을 찍어야 해요. 그래야 작업이 완료됩니다."

현재 3조는 9명 중 김한철 조장을 포함한 6명이 그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다. 또한 자격증이 없으면 작업 자체가 불가능한 까닭에 다른 팀에 비해 외주업체와의 협업 빈도도 상대적으로 낮다. 현재 1개 외주업체와 협업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외주업체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해서 1년 가까이 사내에서 OJT를 받고 있는 중이다. 김한철 조장은 특수용접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출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며, 품질에 대한 긍지와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 특수용접을 담당하는 3조, 미국용접학회 기준에 의한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3조 9명 중 6명이 그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다.

2 3조에서 담당하는 항공기 부품 특수용접은 미세한 불꽃으로 하는 정밀 특수용접이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분야로 신중하고 세심한 작업이기도 하다.

Leader's Advise



KAI의 미래를 부탁합니다

"사장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AI의 지난 20년은 선배들이 갈고 닦아 이룬 성과들이었다면, 앞으로 나아갈 20년은 후배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KAI의 미래를 부탁합니다. KF-X, LAH/LCH 사업들은 시작 단계입니다. 이 사업들은 선배들의 터전 위에 후배들이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바라는 비전 2020 달성을 물론 후배들이 선배들의 노하우를 열심히 습득해서 KAI가 일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절차탁마해줬으면 합니다."



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2조는 근무 연수도 그렇고 나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내년 3월에 정년을 앞둔 선배님도 계시고요. 하루하루 무사히 건강하게 잘 마무리해서 내년 봄에 정년을 잘 마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쾌락도 지혜도 학문도, 그리고 미덕도, 건강이 없으면 그 빛을 잃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한 해 조원 모두 건강을 최우선으로 쟁였으면 합니다. 건강해야 일터에서도 힘이 나니까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내요

"조직생활을 하면 할수록 배려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타인을 공감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해줄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 조직생활 내 배려문화가 정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2/3 이상을 함께하는 동료들 사이에 그런 게 없으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매일 조금씩만 배려하는 마음으로 약간의 긴장과 여유를 안고 하루를 생활하면 직장생활의 질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ini Interview



Q. 기체생산팀2직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세요.

A. 'KAI의 마이스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팀이지요. 기계의 힘보다는 사람의 기술과 섬세함에 더 의지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지 않고, 구성원들의 연령 또한 꽤 높습니다. 그만큼 각자의 숙련된 기술에 대한 자부심 없이는 현장이 서기 힘듭니다. 하여 저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KAI의 마이스터라고 자부합니다.

Q. 기체생산팀2직에서 직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A. 실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가 할 건 많이 없습니다. 조장님들이 잘 해주고 있으니까요. 조마다 업무가 달라서 별다른 협업도 없고, 특히 3조는 업무 공간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같은 팀이지만 함께할 시간도 적습니다. 마치 시계바늘 같다고 해야 할까요. 시계가 멈추지 않으면 그 안의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하잖아요. 직장으로서 제 임무는 톱니바퀴가 멈추지 않게 체크하는 정도입니다. 전 직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건 어렵기 때문에 조장들과 월례회의를 하고 종종 단합 자리를 만들어 애로사항을 듣거나 업무회의를 합니다. 그게 저의 나름의 소통의 창구죠.

Q. 강상희 직장님만의 소통법 궁금합니다.

A. 쉽게 말하면 눈높이 소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조장들이나 직원들을 대할 때는 저보다는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마음을 안 주고, 상대를 존경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힘들고, 자칫 작업에서 불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Q. 선배로서 기체생산팀2직원들에 조언 부탁합니다.

A. 직원들이야 저보다 조장들이 더 잘챙기니, 전 조장님들에게 한마디 전할까 합니다. 늘 생각하지만 전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직 평가에서 우수직이나 최우수 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조장들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하나님을 말하면 열을 이해하는 세 분 조장님 덕분에 제가 할 게 없어요. 다만 인생 선배로서 덧붙이자면, 일하다 보면 괴롭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걸 극복해야 더 좋은 리더가 될 겁니다. 또 현장은 항상 위험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또한 저와 같이 2020년 10조 달성을 위해 한마음 한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악인 엄홍길

수없는 도전 과정에서

끈기와 혜안을 얻다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6좌를 완등한 우리나라 대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의 인생은 늘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산에서 받은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세상과 사람을 향해 보답하려 한다는 엄홍길 대장. 봄볕이 따스한 날, 서울 장충동 '엄홍길휴먼재단' 사무실에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한 엄홍길 대장을 만났다.

글 허주희 사진 제공 엄홍길휴먼재단



좌절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계속된 도전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험준한 히말라야 산, 그 높이와 깊이, 위엄이 어느 정도인지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신의 영역'이라 일컫는 8,000m급 히말라야 산 16개 봉우리를 모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존경과 경외감이 절로 든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은 불굴의 정신력과 도전으로 끝없이 산에 올랐던 엄홍길 대장. 그는 지금, 남은 인생을 '사람을 향한 산(山)'에 오르고 있다. '엄홍길휴먼재단'은 그 시작이다.

엄홍길 대장은 휴머니즘과 자연에 대한 사랑, 인류애를 실천하고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2008년 재단법인 엄홍길휴먼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이후 히말라야 오지인 팽보체, 타르푸, 룸비니, 비렌탄티, 다딩, 산티푸르, 골리, 따토바니, 순디, 마칼루 등지에 '휴먼스쿨'이라는 이름의 학교를 지었다. 그 첫 결실로 2010년 에베레스트 산자락, 4,060m 오지마을 '팽보체'에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학교가 세워졌다. 팽보체는 엄 대장이 1986년 에베레스트 등반에 함께 나섰다가 숨진 세르파 '술딘 도루지'의 고향으로, 히말라야 오지 마을에 총 16개의 학교를 짓겠다는 계획은 2010년 1차 팽보체 마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10차 룸비니 지역의 '순디 휴먼스쿨'까지 완성되었다.

히말라야 16좌 완등에 성공하기까지 엄홍길 대장

은 38번 등정에 도전해 18번 실패했다. 동고동락했던 동료 산악인들을 가슴에 묻은 것도 수차례다.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으면서도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은 '도전과 희망의 끈'이다. "히말라야 8,000m급 16좌를 등정하는 동안 수많은 원정을 떠났습니다. 등반은 산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단순한 행위 같지만,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동료 간의 우정, 희생, 믿음이 필요합니다. 산에 오른다는 것은 이러한 가치들을 체득하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저에게 산은 단순한 등반이 아니라 투쟁입니다. 네팔의 안나푸르나를 4번 실패하고 5번째에 성공했어요. 그 과정에서 3명의 동료를 잃고 저도 발목이 부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좌절과 실패가 두려워서 포기했다면 지금의 엄홍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히말라야의 약속' 네팔에 11번째 학교 완공

"정상에서는 벽찬 환희와 성취감에 도취돼 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난 후, 히말라야 신에 감사하고, 또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감사하며 그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한 동료 산악인들, 그리고 성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이후는 허탈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이뤄낸 것, 살아난 것이 굉장한 은혜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뭘 해야 하는가?' 이 산이 나를 살려서 내려 보내주는 것은, 앞으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홍길 대장은 히말라야 아래, '사람의 세계'에 들어오면서 산을 끼고 사는 네팔의 어려운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보였다고 한다. 가난의 굴레와 배고픔에서 벗어나 삶을 변화시키는 길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것이다. 그러기에 번듯한 '학교'가 꼭 필요했다. 그것은 엄홍길 대장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 '히말라야의 약속'이 되었다.

올해 2월 중순, 휴먼재단은 네팔 남서부 인도 국경 인근의 건지 지역의 11차 휴먼스쿨 준공식을 마쳤다. 또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가 있는 고산족 세르파들의 고향인 남체(3,440m)라는 마을에 의료진 숙소가 아닌, 병원을 짓기로 MOU를 체결하고 카트만두로 내려와 세르파 유가족 자녀들을



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엄 대장은 네팔에서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치고 귀국했다. 몸이 피곤할 법도 한데, 학교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반짝였다.

“이번에 11차 휴먼스쿨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학교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는 여러 기업과 휴먼재단 회원들의 성원과 후원 덕분입니다. 낙후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좋은 시설을 갖춘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뛰놀게 되었으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만 봐도 뿐 듯하고 기쁩니다.”

최악의 상황을 도전 정신으로 극복

지난 해 12월 영화 <히말라야>가 개봉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영화 흥행을 보며 어떤 기분이 들었나는 질문에 “영화에 나왔던 박무택을 비롯해 산에서 동료 10명을 잃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무택 이를 비롯해 그들과 함께 라는 생각으로 산에 오릅니다. 극한 상황에 부닥치면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름을 주문처럼 외워요. 나에게 힘을 다

오, 용기를 다오... 그러면 어느 순간 위기에서 벗어났고 더욱 단단해진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반평생을 혐준한 산에 오르면서 엄 대장은 산에서 받은 고통과 좌절을, 다시 산에서 치유받는다. 그동안 산에서 수많은 고통과 좌절을 겪었지만, 그것들을 뛰어 넘는 더 큰 희망과 삶의 가치를 산으로부터 선물 받는 것이다.

고난과 시련은 하나의 통과의례, 계속 도전해나가길

엄홍길 대장이 살아온 반평생의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는 정상을 밟겠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그에게는 산에 오르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귀중한 도전이었다.

“제 일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간절함, 절박함으로 한 발, 한 발 8,000m에 올랐습니다. 히말라야 산은 술한 육체적 고통과 좌절을 딛고, 죽음이라는 공포를 넘어서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수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과정에서 끈기와 해안이 생기고, 도전을 향한 간절함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성취감으로 돌아옵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좌절했던 수많은 과정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정상 등정’이라는 목표에 성공했을 때 그 벽찬 기쁨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정상에 올랐을 때 엄 대장은 흔히 ‘황홀경’이라는 무의식의 경지에 빠진다. 그러면서도 마음 속에서는 끝없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연신 터져 나온다고 한다. 자신을 허락해준 산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들면서 자신은 한없이 겸허해지는 것이다.

산을 오르는 과정은 사람의 의지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좋은 길이 있으면 나쁜 길도 있는 법.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인내하고 극복해야만 목표인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엄홍길 대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산에 오르는 과정과 같다”고 이야기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어떤 목표로 향해 가는 통과의례라고 생각하며 계속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KAI 가족 여러분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때론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순간마다 도전하는 자세를 잊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KAI 가족으로서 자부심이 도전을 향한 큰 힘이 되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4

“KAI 가족 여러분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때론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순간마다 도전하는 자세를 잊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KAI 가족으로서 자부심이 도전을 향한 큰 힘이 되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1



2



3

- 1 올해 2월 중순, 네팔 남서부 건지 지역의 11차 휴먼스쿨 준공식 때 관계자들 및 아이들과 함께.
- 2 네팔 휴먼스쿨 준공식 현장에서 아이들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엄홍길 대장.
- 3 건지 지역 휴먼스쿨 준공식 때 놀이터에서 네팔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엄홍길 대장.
- 4 건지 휴먼스쿨의 첫 문을 여는 테이프 커팅 행사를 마치고 즐거워하다. 맨 오른쪽은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 5 건지 휴먼스쿨을 준공하고, 이 학교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아이들과 함께 활짝 웃다.



5

조립검사직 이병대 수석
부부의 깜짝 데이트

떨어져 지낸 시간만큼

애틋한 가족愛

가족과 떨어져 훌로 근무하며 지난 지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은 이병대 수석.
가족들과 평일을 함께 나눌 순 없지만
마음만큼은 늘 가족 곁에 있다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가장 힘이 되는
'가족'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해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글 노초룡 사진 안종근



든든한 가장이자 다정다감한 아빠

작년 3월에 산청 사업장으로 발령받아 조립검사직에서 에어버스 A-320, 321 Wing Top Panel 조립 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이병대 수석. 산청 사업장 인근 원룸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이병대 수석이 사보 이벤트로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문을 열자 반기운 얼굴이 가장 먼저 보인다. 두 손에 예쁜 꽃다발과 케이크를 준비해 나타난 아내 조강옥 씨. 주말마다 보령과 산청을 오가며 만나기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아내가 찾아올 줄은 몰랐던 터라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2004년부터 주말 부부로 지난 지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지나 이제는 익숙해졌다는 이병대 수석 부부. 아내와 아이들은 고향 보령에, 이병대 수석은 훌로 산청에 있지만 최근이 없는 주말에는 집에 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큰딸이 6살 때부터 아빠와 떨어져 지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는 평일에 아빠가 없는 게 자연스러웠나 봐요. 어느 날엔가 친구 집에 갔다 와서는 다른 집의 아빠들이 매일 집에 오는 게 이상하다며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이제 고2가 된 큰딸 지희와 중3인 둘째 딸 상희. 한창 사춘기를 맞은 딸들이지만 누구보다도 아빠에게 살갑고 애교가 많다. 어색함이 전혀 없을뿐더러 오히려 아빠를 만나면 서로 안기고 뽀뽀하기 바쁘다고. 예민한 나이임에도 아빠와 거리낌 없이 스킨십을 하는 딸들이 이병대 수석에게는 얼마나 예쁠까.

항상 고마운 내 남편, 내 아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은 경북 봉화에 위치한 청량산이다. 전에 다녔던 직장의 등산 동호회 회원이 어느 날 사촌을 데려왔는데 그가 바로 아내 조강옥 씨였던 것. 강변에서 캠핑파이어도 하고, 퇴계 이황 선생의 시비도 보면서 데이트를 했다는 이병대 수석 부부에게는 지난 세월만큼 쌓인 고마움이 가득하다.

"아내가 시골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제사도 혼자 모시고 있을 정도로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아내 자랑은 팔불출이라지만 시어머니도 잘 모셨고요. 최근에는 편찮으신 장모님까지 쟁기는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마움을 담아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말을 마치자 마침 아내의 꽃다발과 케이크에 보답할 선물이 있다며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오는 이병대 수석. 봉투 안에는 얼마 남지 않은 화이트데이를 위한 선물상자가 들어있었다. 한두 번 받아본 것 이 아닌 듯 아내도 자연스럽게 선물을 받아들고는 다정다감한 남편이 늘 고맙다고 이야기한다.

"아이들에게도 자상한 아빠고, 표현도 잘하는 남편이에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게끔 옆에서 잘 챙겨주는 점도 고맙고요."

여기에 겸소함도 더해진 최고의 남편이다. 2000년에 구입한 중고 소나타를 재작년에 폐차한 뒤에도 다시 중고차를 구입해 타고 다닌다니 그 겸소함을 누가 따라올까 싶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만큼 가족 대신 주변에서 챙겨주는 고마운 동료들도 많다고 말하는 이병대 수석. 외로울까봐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고, 종종 반찬도 챙겨준다는 동료들, 그중에서도 창원공장 혁신팀에 발령받았을 때 만났던 성수경 부장에게는 지면을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지만 그만큼 가족 간에 애틋하고 정이 넘칩니다. 아내와 깜짝 데이트를 하며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에 뿌듯했고요. 모처럼 아내와 사진도 많이 남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활짝 웃는 미소가 닮은 이병대 수석 부부에게는 주말마다 켜켜이 쌓은 남다른 애틋함과 돈독함이 엿 보였다. 마음만큼은 언제나 함께인 두 사람의 가정이 이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더욱 가득하길 바란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지만 그만큼 가족 간에 애틋하고 정이 넘칩니다. 아내와 깜짝 데이트를 하며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에 뿌듯했고요. 모처럼 아내와 사진도 많이 남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강원도 홍천으로 떠나는
아들 면회 이야기
**30년을 거슬러
올라간**

홍천 여행길



글 기체생산팀2직 김종통 전문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에서 발원하여, 청평으로
흘러드는 홍천강은 수심이 얕고
차지 않은 수운, 넓은 강변으로
인해 여름이면 최고의 물놀이로
손꼽힌다. 홍천강 줄기는
143km에 이르며, 강줄기
곳곳에는 관광 명소가 이어져
있다.

강원도 홍천. 사통팔달로 뚫리는 도로 덕분에 주말과 휴가철이면 전국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기도 하다. 지리적 여건도 좋지만, 홍천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사방으로 둘러싸인 울창한 자연에 있다.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강원도 홍천군은 전체 면적의 80~90% 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사계절 모두 각각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여행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도심에서 지친 여행자들이 힐링을 위해 찾는다. 이토록 아름다운 홍천에 나는 특별한 추억이 있다. 그리고 그 추억은 현재 진행형이다. 30년 전 나는 이곳에서 군인으로서 30개월을 지냈고, 지금 내 아들이 나와 같은 운전병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다. 홍천은 그렇게 내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 되었다. 한때는 홍천을 바라보며 오줌도 안 누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지금은 같은 곳에 머물고 있는 아들을 생각하며 시시 때때로 바라보는 애잔한 곳이 되었다.

그렇게 특별한 이곳을 아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찾았다. 애증에서 애잔한 곳으로 바뀐 이곳 홍천. 참 많이 변했다. 30년 세월에 세상 어딘들 안 변하고 버티었겠느냐마는 홍천강의 물길마저 그 곡선이 깊어져 있는듯 하다. 산도 강도 길도 모두 변하는 사이 나도 참 많이 변했다. 장성하여 군인이 된 아들을 찾아 이곳을 다시 찾았으니 말이다.

30년 전 그 시절 나의 첫 휴가를 떠올린다. 그때는 오지었던 이곳 홍천에서 부산까지는 꼬박 11시간이 걸렸다. 오늘은 새벽 5시에 출발해 9시 도착이니 4시간 남짓 걸린 셈이다. 30년 세월 동안 구불구불했던 길들이 반드시 펴지고, 없던 길도 생기며 시간을 일곱 시간이나 단축해놨다. 얼마나 다행인가.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더 가까워졌으니. 내 모습과 닮아있을 아들을 만나러 그 길을 한걸음에 달려간다.

아내는 며칠 전부터 설레고 있다. 딱히 말로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어딘지 모르게 평소와 다른 행동에서 기다림과 설렘을 느낄 수 있다. 아들을 위한 음식이며, 잠시 갈아입을 옷가지를 준비하는 발걸음이 사뿐하고, 심지어 내게는 보여주지 않는 미소까지 있다. 얼마나 그리운 이들인가.

4시간을 꼬박 달려 드디어 아들의 부대에 도착했다. 육군 운전병 약전 수송교육대 면회실에 접수를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이 뛰어나온다. 반가운 마음에 열싸안으려 하니 뒤로 물러서 바로 경례를 올린다. “충성, 이병 김경훈!”

순간 울컥하며 코끝이 찡해온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지 않은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경례를 받는다. 아내는 벌써 눈가가 촉촉해져 있다. 그래도 입꼬리는 내려울 줄 모른다. 좋긴 좋은가 보다.

집에서 이미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푸짐하게 싸웠지만, 홍천에 왔으면 닭갈비와 막국수를 먹어야 한다며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닭갈비집을 찾아 나섰다. 옛날 기억을 더듬어 숯불에 구운 닭갈비집을 찾았지만 실패하고, 아쉬운 대로 진주에서도 흔히 먹을 수 있는 닭갈비와 막국수를 먹었다. 내가 찾던 숯불에 구운 닭갈비는 아니어 실망했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참 잘도 먹는다. 집에서는 이 정도로 먹지 않았는데, 아들은 쉬지 않고 먹는다.

먹으면서 재잘재잘 말도 잘한다. 훈련소와 운전교육대 등 끝없이 군대 이야기를 이어간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군대 이야기를 평생 하

홍천의 명소인 수타사는 신라 성덕왕 7년(708년)에 원효대사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 천년 고찰이다. 이곳은 생태숲으로도 유명한데, 숲에 조성된 수타사 산소길은 총 4개 코스로 홍천의 청정 자연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다.





군인이 된 늄름한 아들을 만났고, 30년 전 풋풋했던 내 모습을 만났던 홍천 여행길.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자꾸 홍천 방향만 바라보게 될 것 같은 예감. 30년 전의 내가 다시 그곳에서 숨 쉬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도 든다.

겠지'. 잘 먹고 잘 말하는 것처럼 몸매도 더 좋아졌다. 부럽다. 입대 전에도 살찐 몸매는 아니었지만, 사우나에서 아들의 몸을 보니 어깨 근육과 복근이 제법 탄탄하다. 내 눈엔 <태양의 후예>에서 몸매를 자랑하던 군인들에 빼지지 않아 보인다.

군대 물품도 좋아졌다. 군화가 고어텍스다. 우리 땐 통가죽에 물광, 불광 낸다고 바빴는데, 지금은 그런 풍경을 알기나 할까. 디지털 군복도 새롭다. 각 잡아 칼같이 다려 입을 필요도 없고 그냥 탁탁 털어 입기만 해도 스트라이프 제대로 나온다. 군복을 잘 차려입은 아들이 운전병답게 차량의 종류나 운전법에 대해 제법 전문가처럼 이야기한다. 군대 선후배로서 이야기가 제법 잘 통한다. 어쩐지 아내만 소외된 분위기.

나는 1987년, 아들은 2016년. 아버지와 아들이 30년 차 이를 두고 같은 곳, 같은 보직으로 군 복무에 임한다는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다. 아직은 어설프고 여물지 못한 아이 같은데, 아들이 군인이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30년 전 나의 모습도 저러했겠지.



- 1 홍천군 남면과 북방면에 걸쳐 자리 잡고 있는 금학산(652m).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홍천강을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태극문양이 경이로움을 자아낸다.
- 2 군인이 되어 늄름한 자세로 경례하는 아들의 모습.
- 3 부산에서 4시간 동안 달려 만난 아들의 얼굴. 오랜만에 세 식구가 모여 사진을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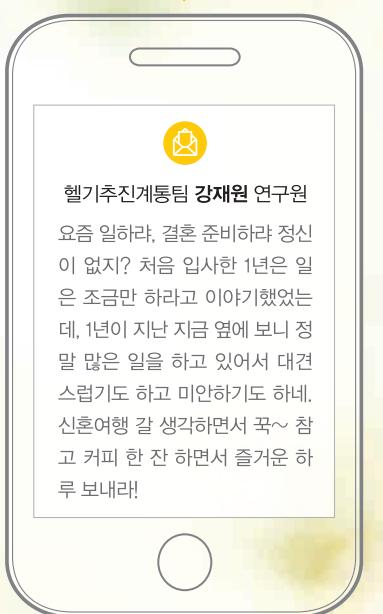


2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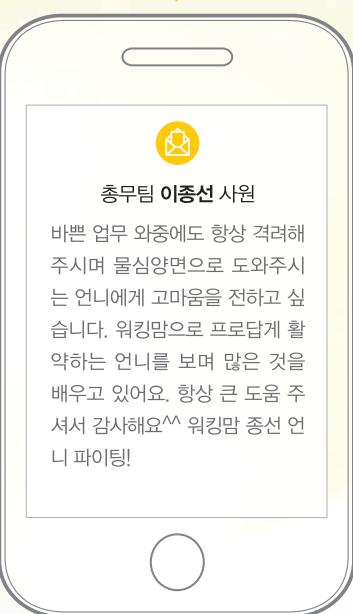
고마운 선배, 둘도 없는 동기, 아끼는 후배,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거래 고객 등 소중한 지인들에게 안부를 보내보세요.
마음을 담은 메시지와 함께 기프티콘을 전해드립니다.

☞ 헬기추진계통팀 이기형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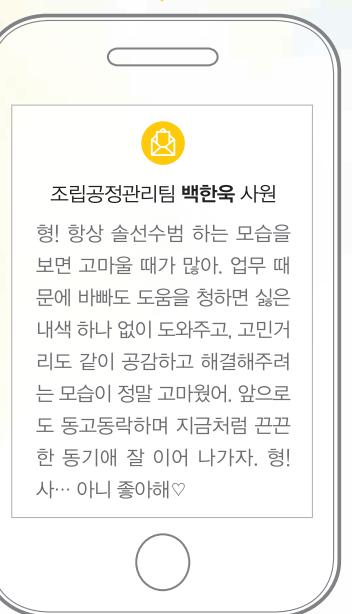
헬기추진계통팀 강재원 연구원
요즘 일하랴, 결혼 준비하랴 정신이 없지? 처음 입사한 1년은 일은 조금만 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옆에 보니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대견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네. 신혼여행 갈 생각하면서 꾸~ 참고 커피 한 잔 하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라!

☞ 총무팀 이가연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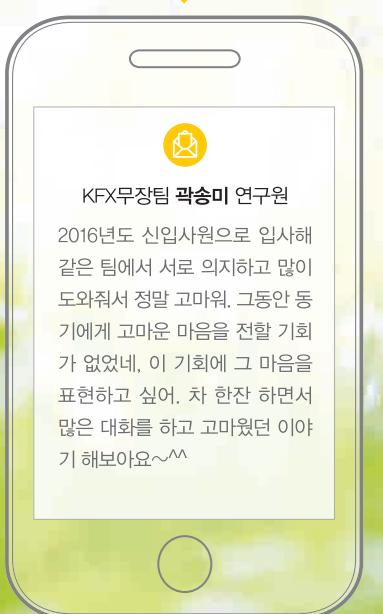
총무팀 이종선 사원
바쁜 업무 와중에도 항상 격려해주시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언니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워킹맘으로 프로답게 활약하는 언니를 보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항상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워킹맘 종선 언니 파이팅!

☞ 조립공정관리팀 김현준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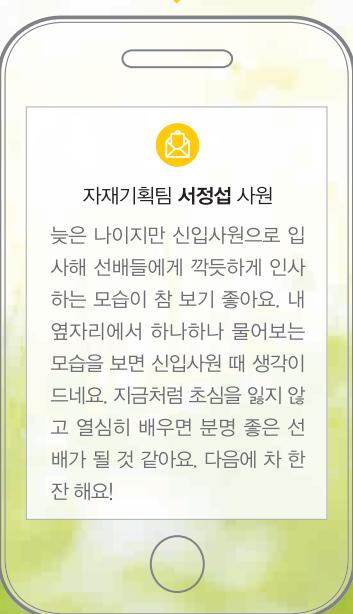
조립공정관리팀 백한옥 사원
형! 항상 솔선수범 하는 모습을 보면 고마울 때가 많아. 업무 때문에 바빠도 도움을 청하면 싫은 내색 하나 없이 도와주고, 고민거리도 같이 공감하고 해결해주려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어. 앞으로도 동고동락하며 지금처럼 끈끈한 동기애 잘 이어 나가자. 형! 사... 아니 좋아해♡

☞ KFX무장팀 박정필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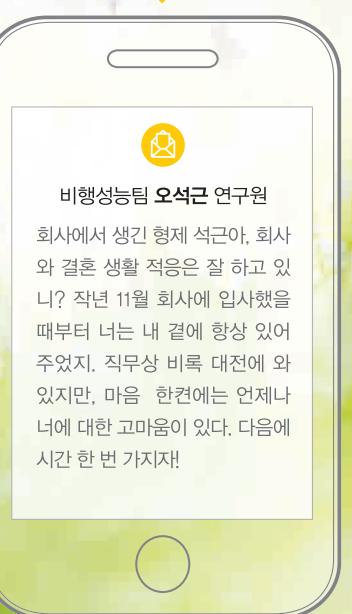
KFX무장팀 곽송미 연구원
2016년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같은 팀에서 서로 의지하고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동안 동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기회에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차 한잔 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고 고마웠던 이야기 해보아요~^^

☞ 자재기획팀 강영현 과장



자재기획팀 서정섭 사원
늦은 나이지만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선배들에게 각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내 옆자리에서 하나님아 물어보는 모습을 보면 신입사원 때 생각이 드네요. 지금처럼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배우면 분명 좋은 선배가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차 한잔 해요!

☞ 위성체계팀 김보성 선임



비행성능팀 오석근 연구원
회사에서 생긴 형제 석근아, 회사와 결혼 생활 적응은 잘하고 있니? 작년 11월 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너는 내 곁에 항상 있어주었지. 직무상 비록 대전에 위치지만,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너에 대한 고마움이 있다. 다음에 시간 한 번 가지자!

GIFT BOX

—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Fly Together〉는 KAI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자연에 소개할만한 KAI인, 팀워크가 좋은 부서,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고 싶은 동료, 특별한 사연의 가족 등을 추천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추천이 함께 소통하는 〈Fly Together〉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한국 공군 블랙이글팀이 환상적인 특수비행을 선보이며 싱가포르의 창공을 수놓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기술로 만든 T-50계열의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뜻 깊고 자랑스러운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KAI가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기업에서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안선희 독자님(충남 서천군 서면)

3월호 표지의 KF-X 모습이 튼튼하고 멋있게 보입니다. KAI의 의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보를 통해 외국 기종에 대해서도 소개해주길 기대하며,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철영 독자님(인천시 남구 석정로)

파견 직원 탐방 칼럼이 매우 좋았습니다. 자칫 소외될 수 있는데, 미래의 산업화를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파견 직원의 노고에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KF-X, T-X 사업을 넘어 차기 목표는 우주비행선, 달 탐사 등 우주개발로 선진국의 기술에 한발 다가서는 KAI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태현 차장(우주사업팀)

항공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세계의 항공산업에 대한 정보는 잘 접할 수 없었는데, 말레이시아를 소개한 World Today 칼럼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역사 및 지리적 환경에 의한 항공산업의 발전 및 현황을 잘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를 고민해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성길 과장(품질기획팀)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이 예전에 비해 얼마나큼 발전했는지 느낄 수 있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현재는 미국 기술 수준 대비 75%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언젠간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는 날이 있을 거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공우주산업과 KAI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주 사원(고정익RU구매팀)

〈Fly Together〉를 읽고난 소감과 독자 퀴즈의 정답을 엽서 또는 이메일(boram@koreaaero.com)로 보내주세요. 내용을 보내준 독자 중 5명을 추첨해 고급 손목시계를 드립니다.



본부별 사내기자단 명단

전략기획본부 신사업전략팀 박주호 사원 055-851-0852

재경총괄 지금팀 최준형 사원 055-851-9711

국내사업본부 사업관리3팀 정종원 과장 055-851-6175

해외사업본부 수출기획팀 이유리 과장 055-851-9583

구매본부 구매기획팀 김민준 사원 055-851-9097

개발사업관리본부 고정익개발사업관리팀 김명석 부장

055-851-6062

고정익개발본부 KT-체계팀 손영호 선임 055-851-9956

회전익개발본부 LAH체계중합팀 노나영 연구원

055-851-9140

대전연구센터 무인전력사업팀 박가영 과장 055-851-9787

생산본부 생산계획팀 윤정희 부장 055-851-1896

CS본부 운영기획팀 안재운 과장 055-851-2867

품질총괄 품질기획팀 이창영 사원 055-851-9495

반응형 웹진으로 만나는 〈Fly Together〉.

PC나 스마트폰에 아래 주소를 KAI 사보로 연결됩니다.

kaiwebzine.com

> 사보 〈FLY Together〉 웹진 오픈 축하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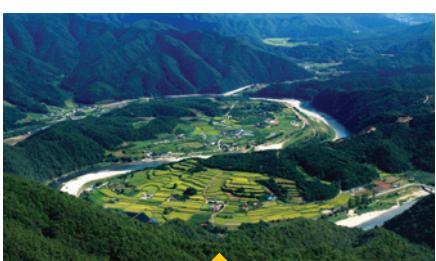
웹진에 댓글 달고 상품 받으세요! 편리하고 재미있게 웹진으로 사보 〈FLY Together〉를 보셨다면,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음료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3월호 댓글 이벤트 당첨자: KFX기체해석팀 김재한 사원

바로 잡습니다

지난달 〈생생현장탐방〉 38페이지에 소개된 이원철 책임연구원의 소속이 잘못 표기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발사체계계팀 → 발사체체계팀

독자 퀴즈



Q 이곳은 태백산맥 서사면의 이름을 차지해 기복이 심하고, 동부와 북부에는 1,000m 이상의 높은 산들이 연이어 있어 산지가 전체 면적의 87%를 차지하는 곳이다. 이곳의 해발고도는 약 150m에서 1,000m 내외를 이루고 있으며, 내면지역은 해발 800m 이상의 고원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팔봉산, 공작산, 응봉산, 매화산 등의 산으로 이어진 이곳은 어디일까요?
(‘추억의 여행’ 칼럼 참조)

Congratulations!



WEDDING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2. 28

조립생산팀5직 송수현 기술원

3. 5

사업관리1팀 윤성원 과장

3. 19

헬기무장체계팀 서수진 선임

2. 12

전장설계팀 김상현 선임 / 득남

2. 18

기체생산기술2팀 윤진호 과장 / 득녀

2. 19

헬기사업2팀 양정무 과장 / 득녀

2. 20

헬기비행성능팀 이동인 팀장 & 수출기술팀 이수정 차장 / 득남

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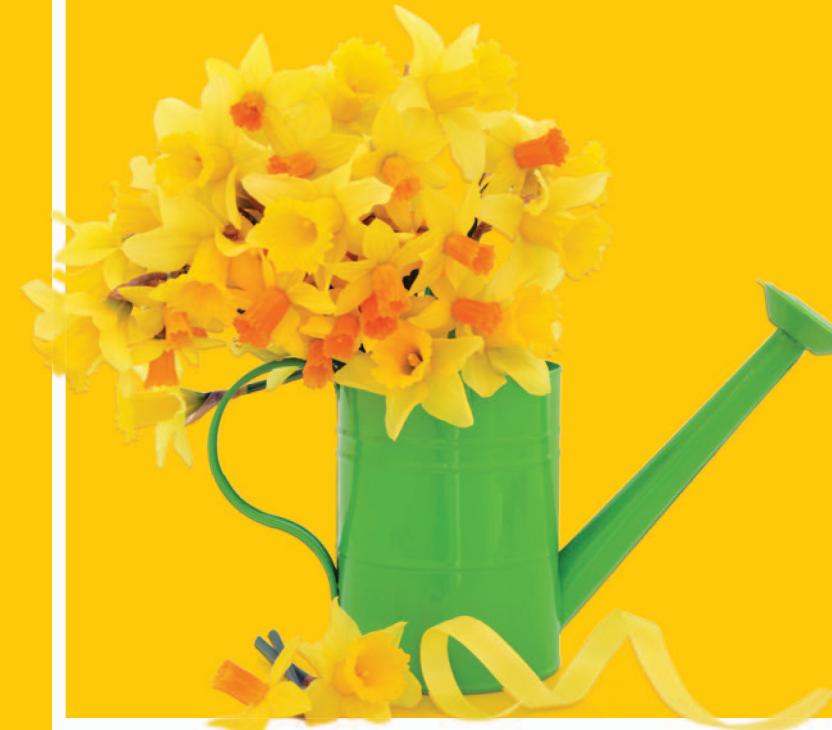
기체설계팀 이은경 선임 / 득남

3. 16

무인기비행체팀 진인수 책임 / 득남

3. 26

국제공동설계팀 최홍석 선임 / 최윤우(아들) 돌



GIFT BOX

—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Fly Together〉는 KAI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자연에 소개할만한 KAI인, 팀워크가 좋은 부서,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고 싶은 동료, 특별한 사연의 가족 등을 추천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추천이 함께 소통하는 〈Fly Together〉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한국 공군 블랙이글팀이 환상적인 특수비행을 선보이며 싱가포르의 창공을 수놓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기술로 만든 T-50계열의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뜻 깊고 자랑스러운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KAI가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기업에서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안선희 독자님(충남 서천군 서면)

3월호 표지의 KF-X 모습이 튼튼하고 멋있게 보입니다. KAI의 의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보를 통해 외국 기종에 대해서도 소개해주길 기대하며,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철영 독자님(인천시 남구 석정로)

파견 직원 탐방 칼럼이 매우 좋았습니다. 자칫 소외될 수 있는데, 미래의 산업화를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파견 직원의 노고에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KF-X, T-X 사업을 넘어 차기 목표는 우주비행선, 달 탐사 등 우주개발로 선진국의 기술에 한발 다가서는 KAI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태현 차장(우주사업팀)

항공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세계의 항공산업에 대한 정보는 잘 접할 수 없었는데, 말레이시아를 소개한 World Today 칼럼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역사 및 지리적 환경에 의한 항공산업의 발전 및 현황을 잘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를 고민해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성길 과장(품질기획팀)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이 예전에 비해 얼마나큼 발전했는지 느낄 수 있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현재는 미국 기술 수준 대비 75%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언젠간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는 날이 있을 거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공우주산업과 KAI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주 사원(고정익LRU구매팀)

〈Fly Together〉를 읽고난 소감과 독자 퀴즈의 정답을 엽서 또는 이메일(boram@koreaaero.com)로 보내주세요. 내용을 보내준 독자 중 5명을 추첨해 고급 손목시계를 드립니다.



본부별 사내기자단 명단

전략기획본부 신사업전략팀 박주호 사원 055-851-0852

재경총괄 지금팀 최준형 사원 055-851-9711

국내사업본부 사업관리3팀 정종원 과장 055-851-6175

해외사업본부 수출기획팀 이유리 과장 055-851-9583

구매본부 구매기획팀 김민준 사원 055-851-9097

개발사업관리본부 고정익개발사업관리팀 김명석 부장

055-851-6062

고정익개발본부 KT-체계팀 손영호 선임 055-851-9956

회전익개발본부 LAH체계중합팀 노나영 연구원

055-851-9140

대전연구센터 무인전력사업팀 박가영 과장 055-851-9787

생산본부 생산계획팀 윤정희 부장 055-851-1896

CS본부 운영기획팀 안재운 과장 055-851-2867

품질총괄 품질기획팀 이창영 사원 055-851-9495

반응형 웹진으로 만나는 〈Fly Together〉.

PC나 스마트폰에 아래 주소를 KAI 사보로 연결됩니다.

kaiwebzine.com

사보 〈FLY Together〉 웹진 오픈 축하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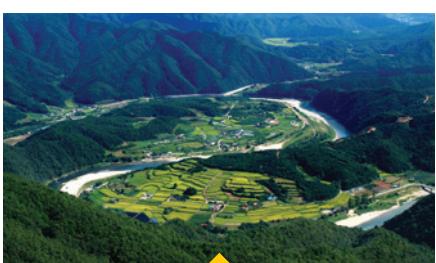
웹진에 댓글 달고 상품 받으세요! 편리하고 재미있게 웹진으로 사보 〈FLY Together〉를 보셨다면,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음료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3월호 댓글 이벤트 당첨자: KFX기체해석팀 김재한 사원

바로 잡습니다

지난달 〈생생현장탐방〉 38페이지에 소개된 이원철 책임연구원의 소속이 잘못 표기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발사체계계팀 → 발사체체계팀

독자 퀴즈



Q 이곳은 태백산맥 서사면의 이름을 차지해 기복이 심하고, 동부와 북부에는 1,000m 이상의 높은 산들이 연이어 있어 산지가 전체 면적의 87%를 차지하는 곳이다. 이곳의 해발고도는 약 150m에서 1,000m 내외를 이루고 있으며, 내면지역은 해발 800m 이상의 고원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팔봉산, 공작산, 응봉산, 매화산 등의 산으로 이어진 이곳은 어디일까요?
(‘추억의 여행’ 칼럼 참조)

Congratulations!



WEDDING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2. 28

조립생산팀5직 송수현 기술원

3. 5

사업관리1팀 윤성원 과장

3. 19

헬기무장체계팀 서수진 선임

2. 12

전장설계팀 김상현 선임 / 득남

2. 18

기체생산기술2팀 윤진호 과장 / 득녀

2. 19

헬기사업2팀 양정무 과장 / 득녀

2. 20

헬기비행성능팀 이동인 팀장 & 수출기술팀 이수정 차장 / 득남

2. 22

기체설계팀 이은경 선임 / 득남

3. 16

무인기비행체팀 진인수 책임 / 득남

3. 26

국제공동설계팀 최홍석 선임 / 최윤우(아들) 돌



FAMILY

행복이 늘었어요!

●

